범어·만촌에서 영어로 앞서가기

초등부터 중등까지,
학군지 고등영어를 준비하는
현실적인 학습 전략

김용진 지음



“Children are made readers
on the laps of their parents.”

“아이들은 부모의 무릎 위에서 독자로 자란다.”

— Emilie Buchwald

저자 소개

김용진

영어교육 설계자
(주)에쎈에듀 대표
에쎈영어 원장

영국 브리스톨대학교(University of Bristol)에서 Symbolic Violence, Reproduction and Education: The Case of South Korea를 주제로 교육학석사(M.Ed.) 학위를 최우수등급(Distinction)으로 취득했으며, 경북대학교에서 영어학석사(M.A.) 학위를 받았다. 한미연합사에서 통번역 업무(KATUSA)를 수행했으며, 토익 990점 만점과 텝스 1+급 등 각종 공인영어시험에서 최고득점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범어·만촌 지역에서 학생들의 영어학습을 지도하며, 지역 주요 고등학교의 내신 및 수능 영어 1등급 배출과 대학 입시 성과를 이어오고 있다. 교육학과 영어학의 학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부모와 가정환경이 학생의 영어문해력과 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고민하며, 자녀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부모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들어가며

영어교육,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요?

자녀의 영어교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면서도 학부모들의 고민은 끊이지 않는다.

“우리 아이는 지금 제대로 영어를 공부하고 있을까?”

“중학교 영어에서 100점을 받으면 고등학교에서도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영어학원에 꾸준히 다니는데 실제 영어 실력은 얼마나 늘고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학생마다 영어학습을 시작한 시기와 현재의 실력, 학습 속도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어학습에서 반드시 생각해야 할 몇 가지 원칙은 있다. 영어문장을 충분히 읽고, 다양한 문맥에서 어휘를 만나며, 배운 문법을 실제 독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처음 보는 영어 지문을 스스로 읽고 이해하는 영어문해력을 길러야 한다.

중학교 영어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성취다. 하지만 그것이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 영어에서의 높은 성적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범어·만촌 지역의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의 영어 지문을 학습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정해진 시험범위를 반복해서 익히는 방식만으로는 이러한 학습량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영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어 실력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좋은 교재와 체계적인 수업은 중요하다. 그러나 학생이 직접 충분한 양의 영어를 읽고, 배운 내용을 반복해서 활용하는 경험이 없다면 실질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다. **아이가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누가 만들어 주어야 할까?** 아무리 좋은 학습 방법을 알고 있더라도 학생의 의지만으로 충분한 학습량을 오랫동안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학생의 수준에 맞는 자료와 정기적인 학습 시간, 학습 내용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교육기관뿐 아니라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다. 부모가 반드시 영어를 잘하거나 직접 가르칠 필요는 없다. 아이와 함께 도서관에 가고, 저녁 시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함께 책을 읽으며, 가정에서 책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자녀가 어떤 학원에 다니고 있든, 현재의 영어 실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실제로 성장하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책은 범어·만촌 지역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며 쌓은 경험과 교육학·영어학의 학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학부모들이 자녀의 영어교육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썼다. 영어문해력과 충분한 독해량의 중요성, 초등·중등 시기의 학습 방향, 문법과 어휘를 효과적으로 익히는 방법, 그리고 부모가 마련해야 할 학습 환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 책이 자녀의 영어교육을 고민하는 학부모들에게 현실적인 판단 기준과 실천 방법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차례

저자 소개 3

들어가며 4

1장. 범어·만촌에서 영어를 잘한다는 것 6

2장. 영어문해력, 고등 입시영어의 핵심 8

3장. 중학교 100점과 고등학교 1등급 사이 13

4장. 초등 영어, 무엇을 완성해야 할까? 17

5장. 중학교 3년은 고등 영어를 준비하는 시간 22

6장. 문법은 왜 배워도 계속 틀릴까? 26

7장. 단어는 외웠는데 왜 해석이 안 될까? 30

8장. 소리영어, 언어는 소리가 먼저다 34

9장. 초등 고학년부터 시작하는 실전 입시영어 준비 38

10장. 부모의 역할은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44

11장.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50

12장. 학부모를 위한 영어교육 로드맵 54

실천 가이드. 우리 아이 영어학습 점검하기 58

부록. 한눈에 보는 초·중등 영어학습 원칙 60

맺음말 62

1장. 범어·만촌에서 영어를 잘한다는 것

01.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모이는 곳

대구 범어·만촌은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원서를 읽고 문법을 공부하며, 중학교에 진학하기 전부터 높은 수준의 영어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지역의 여러 중학교에서는 교과서뿐 아니라 외부 지문과 까다로운 문법, 서술형 문제까지 출제된다. 학교에 따라 시험범위가 상당히 넓고 문제의 난도도 높아,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이런 환경에서 중학교 영어 90점이나 100점을 받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성취다. 학생의 노력과 학습 성과를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중학교 영어시험에서 고득점을 받는 것이 고등학교 진학 후 내신과 수능 영어의 고득점을 보장하는가?** 중학교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고등학교에서도 반드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중학교 성적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영어의 기초 체력을 꾸준히 쌓아 고등학교에서 성장하는 학생들도 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시험 점수만이 아니다. **실제 입시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 영어, 나아가 대학 진학 후에도 필요한 영어 실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학습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02. 중학교 성적과 영어 실력은 구별해야 한다

중학교 내신은 정해진 시험범위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비했는지 평가한다. 교과서와 외부 지문을 분석하고, 학교별 출제 경향에 맞춰 문법과 서술형을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험 준비 역시 영어학습의 중요한 일부다. 특히 범어·만촌 지역의 중학교 시험을 단순한 암기 시험으로 여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상당한 수준의 독해력과 문법 활용 능력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출제된다.

그럼에도 시험범위 안의 내용을 충분히 반복해 높은 점수를 받는 것과, 처음 보는 영어 지문을 스스로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학교 시험에서 100점을 받은 학생에게 시험범위 밖의 새로운 지문을 제시했을 때, 문장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글의 중심 내용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어떨까? 그 학생의 중학교 성적이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학교 시험에서 확인된 성취와 별도로 보완해야 할 영어 능력이 남아 있다는 의미다. **내신 성적은 중요한 지표이지만, 영어 실력 전체를 보여주는 유일한 지표는 아니다.**

따라서 학부모는 학교 성적과 함께 자녀가 처음 접하는 영어 문장을 얼마나 정확하게 읽는지, 다양한 소재의 글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 배운 문법을 실제 독해에 활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을 학부모가 직접 평가하기 어렵다면 Star Reading이나 NELT 같은 외부 진단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내에서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을 갖춘 학원의 레벨 테스트를 통해 우리 아이의 현재 영어 실력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03. 영어 실력에는 두 가지 시간이 흐른다

영어학습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시간이 흐른다. 하나는 눈앞의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교과서와 외부 지문을 분석하고, 학교별 출제 경향을 익히며, 문법과 서술형 문제를 연습한다. 시험이 가까워지면 정해진 범위를 집중적으로 반복해 정확도를 높인다. 다른 하나는 영어 자체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쌓는 시간이다. 다양한 글을 읽으며 어휘를 확장하고, 복잡한 문장 구조에 익숙해지고, 글의 논리적 흐름을 이해하는 힘을 기른다. 이러한 능력은 몇 주 동안의 집중적인 시험 준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오랜 시간에 걸친 꾸준한 학습과 반복적인 경험이 필요하다.

두 가지 학습은 어느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관계가 아니다. 중학교 내신을 소홀히 하자는 것도 아니고, 학교 시험에 필요한 준비를 줄이자는 것도 아니다. 다만 내신 기간에는 학교 시험 준비에 집중하고, 시험이 끝나면 장기적인 영어 실력을 쌓는 학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중학교 3년을 **상대적으로 좁은**

시험범위의 분석과 변형문제 풀이에만 집중하며 보낸다면, 고등학교의 훨씬 넓은 시험범위를 소화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독해 경험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영어뿐 아니라 다른 과목의 학습 부담도 함께 증가한다. 그때 가서 부족한 독해력과 어휘력, 문장 이해 능력을 단기간에 보완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 범어·만촌 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시험범위를 단어 수로 비교한 자료는 3장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따라서 중학교 시절에는 당장의 내신 성적을 관리하면서도 고등학교 영어를 위한 장기적인 준비를 병행해야 한다. **중학교 내신은 매 학기의 과제이지만, 고등학교 영어를 준비하는 일은 중학교 3년 전체의 과제다.**

04.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학부모가 자녀의 영어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어려운 영어 지문을 골라 시험을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학교 성적 외에도 영어 실력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다. Star Reading과 같은 읽기 수준 진단검사나 NELT와 같은 영어 능력 진단평가를 활용하면 학생의 현재 수준과 영역별 강점·약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 차례의 평가 결과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일정한 간격으로 같은 평가 체계에서 성장 추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어떤 학원에 다니고 있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배우는 동안 실제 영어 실력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학부모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아이는 학교 시험범위 밖의 영어 지문도 꾸준히 읽고 있는가?

지금 배우는 문법을 새로운 문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가?

영어책이나 독해 교재의 수준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해 능력도 성장하고 있는가?

일정한 간격으로 영어 실력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올바른 영어학습의 출발점이다. 중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취가 고등학교에서도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영어 능력을 갖추는 일이다. 지금 영어를 잘하는 아이를 넘어, 앞으로도 잘하는 아이로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2장. 영어문해력, 고등 입시영어의 핵심

영어문해력은 개별 영어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능력을 넘어, 글 전체의 의미와 논리를 이해하는 능력이다. 문장 속 단어의 뜻을 모두 알고 각각의 문장을 해석할 수 있더라도 글쓴이가 전달하려는 중심 생각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충분한 독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 영어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바로 이러한 영어문해력이다.

01. 문장을 해석하는 것과 글을 이해하는 것은 다르다

영어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독해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문장 하나하나를 해석하는 것만으로 글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Many people believe that making mistakes prevents learning. However, mistakes can actually help us understand what we need to improve.

많은 사람은 실수가 학습을 방해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실수는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실수가 학습을 방해한다는 일반적인 믿음을 소개한다. 그러나 두 번째 문장은 However를 통해 앞선 생각과 반대되는 관점을 제시한다. 따라서 이 글의 핵심은 '실수가 학습을 방해한다'가 아니라 '실수는 개선할 점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각 문장의 뜻을 아는 것뿐 아니라 문장 사이의 관계를 이해해야 글의 중심 생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고등학교 영어에서는 이처럼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를 구별하고, 대조·인과·양보·예시 등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논리 관계	영어 표현	읽는 방향
대조	but, however	서로 다른 관점이나 특징
인과	because, therefore	원인과 결과
양보	although, even though	예상과 다른 결과
예시	for example, for instance	앞선 설명을 뒷받침하는 사례

다만 이러한 연결 표현을 외우는 것만으로 독해력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연결어가 명시되지 않아도 문장 사이의 의미 관계를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02. 실제 독해에서 영어문해력은 어떻게 작동할까?

다음은 공부 시간과 학습 효과에 관한 짧은 글이다.

Many students believe that studying for longer hours always leads to better results. However, the quality of their attention may matter more than the amount of time they spend studying. A shorter period of focused learning can sometimes be more effective than several hours of distracted practice.

많은 학생은 더 오랜 시간 공부하면 언제나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믿는다. 그러나 공부에 집중하는 정도는 공부에 들이는 시간의 양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집중해서 공부하는 짧은 시간이 주의가 분산된 채 공부하는 여러 시간보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 짧은 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러 능력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첫째, 어휘의 문맥상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lead to는 '~로 이어지다', attention은 '주의·집중', effective는 '효과적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단어의 대표적인 뜻을 암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장 속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이해해야 한다.

둘째,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the amount of time they spend studying

이 표현은 '그들이 공부하는 데 쓰는 시간의 양'이라는 의미다. the amount of time을 중심으로 뒤의 they spend studying이 어떤 시간을 말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문장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단어의 뜻을 알아도 정확하게 해석하기 어렵다.

셋째, 글의 논리적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

첫 문장은 공부 시간이 길수록 결과가 좋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제시한다. 그러나 However 이후에는 공부 시간의 양보다 집중의 질이 중요할 수 있다는 관점이 등장한다. 따라서 이 글의 중심 생각은 '오래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공부 시간의 양보다 집중의 질이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Focused study can be more productive than longer but distracted study.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이 더 오랜 시간 산만하게 공부하는 것보다 생산적일 수 있다.

이 문장은 원문과 표현이 다르지만 핵심 의미는 같다. 이처럼 영어문해력은 어휘, 문법, 문장 구조, 글의 논리, 표현의 재진술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다.

03. 패러프레이즈, 같은 의미 - 다른 표현의 이해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 영어에서는 지문의 문장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고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패러프레이즈(paraphrase)라고 한다.

다음 두 문장을 비교해 보자.

The price of the product increased.

The product became more expensive.

첫 번째 문장은 '그 제품의 가격이 올랐다'는 의미이고, 두 번째 문장은 '그 제품이 더 비싸졌다'는 의미다. 표현과 문장 구조는 다르지만 가격이 상승했다는 공통된 의미를 전달한다.

다른 예를 살펴보자.

Many students underestimate the importance of regular practice.

The value of consistent training is often overlooked by learners.

두 문장은 모두 학습자들이 꾸준한 연습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underestimate와 overlook, regular practice와 consistent training처럼 서로 다른 표현이 비슷한 의미를 나타낸다. 하지만 단어가 비슷하다고 해서 언제나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The number of people living alone has increased.

More people are choosing to live by themselves.

두 문장은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공통된 흐름을 나타낸다. 그러나 두 번째 문장에는 스스로 선택한다는 의미가 추가되어 있다. 고등 영어에서는 이처럼 비슷한 표현 사이의 공통점뿐 아니라 미묘한 차이까지 파악해야 한다. **패러프레이즈 능력은 단순히 유의어를 많이 암기한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다양한 문장에서 같은 의미가 서로 다르게 표현되는 경험을 충분히 쌓아야 한다.**

04. 영어문해력을 기르는 핵심은 충분한 독해량이다

영어문해력을 기르는 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학습 활동은 충분한 양의 영어를 직접 읽는 것이다. 문법 설명을 듣거나 독해 문제를 푸는 요령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영어문해력이 충분히 성장하기 어렵다. 학생이 직접 다양한 영어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경험이 축적되어야 한다. 충분한 독해량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다양한 문맥에서 어휘를 반복적으로 만나게 된다.

단어장에서 외운 단어를 이야기책과 과학·사회·역사 지문에서 다시 만나면 그 단어가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ddress라는 단어는 '주소'라는 명사로도 쓰이지만 address a problem에서는 '문제를 다루다'라는 동사로 사용된다. 이런 다양한 쓰임을 실제 문장 속에서 반복적으로 접하면서 어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물론 다독이 모든 단어 암기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체계적인 어휘 암기와 문맥 속 반복 노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문법과 문장 구조가 자연스럽게 내재화된다.

관계사, 분사, 수동태, 가정법 등의 문법을 배웠더라도 실제 문장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독해에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 문법 규칙을 설명할 수 있는 것과 복잡한 문장을 읽는 순간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서로 다른 능력이다. 다양한 영어 지문에서 이미 배운 문법 구조를 반복적으로 만나면 매번 규칙을 처음부터 떠올리지 않고도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셋째, 패러프레이즈 능력이 성장한다.

여러 분야의 글을 읽다 보면 같은 생각을 서로 다른 어휘와 문장 구조로 표현하는 사례를 반복해서 접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이 쌓이면 표현이 달라져도 의미를 연결해서 이해하는 능력이 성장한다. 결국 충분한 독해량은 어휘, 문법, 문장 구조, 패러프레이즈를 개별적으로 공부한 내용을 실제 영어 이해 능력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05. 다독과 정독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양의 영어를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어려운 글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영어 독해학습에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두 가지 읽기 활동이 필요하다. **다독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글을 많이 읽는 활동이다.** 읽는 과정에서 모르는 단어나 문장이 지나치게 많지 않아야 한다. 학생이 글의 흐름을 따라가며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책과 지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독은 상대적으로 어렵고 복잡한 문장을 정확하게 분석하며 읽는 활동이다.** 문장의 중심 구조를 찾고, 수식 관계를 이해하며, 글의 논리적 흐름과 세부 의미를 분석한다.

다독과 정독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관계가 아니다. 다독을 통해 충분한 영어 노출량을 확보하고, 정독을 통해 복잡한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초등학생이라면 수준에 맞는 영어 원서와 논픽션을 활용할 수 있다. 중학생은 토플형 논픽션과 수능모의고사 지문을 수준에 맞춰 병행하는 것이 좋다. 과학·역사·사회·문화·심리 등 다양한 분야의 글을 고루 접하면 어휘력뿐 아니라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지식도 함께 넓힐 수 있다.

06. 독해량을 얼마나 확보해야 할까?

평균적인 영어학원 커리큘럼의 경우, 영어 독해학습서 한 권을 빠르면 2개월, 늦으면
6개월에 공부한다. 물론 교재의 수준과 수업 방식에 따라 적절한 학습 속도는 달라진다. 그러나 한 권의 독해 교재를 끝내는 것만으로 충분한 영어 노출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저자는 통상적인 독해학습서 진도를 기준으로 **같은 기간에 최소 3배 이상 많은 독해량을 확보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제안한다.** 이 수치는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검증된 기준이 아니라, 충분한 영어 읽기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실천 목표다.

예를 들어 비슷한 길이와 난도의 영어 지문을 일주일에 4개 읽는 학생이라면, 학습 환경을 조정해 12개 정도를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지문의 길이와 난도, 학생의 이해도를 고려하지 않고 문제 수만 늘려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많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읽고 이해하는 영어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다. 어려운 지문 몇 개를 오랫동안 분석하는 활동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글을 많이 읽는 활동을 적절하게 병행해야 한다.

07. 독해량을 확보하려면 환경이 필요하다

학생에게 영어책을 많이 읽으라고 말한다고 해서 충분한 독해량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수준에 맞는 다양한 읽기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영어를 읽는 시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생의 의지만으로 매일 상당한 분량의 영어를 읽고 복습하는 습관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가정과 교육기관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교육기관에서는 학생의 수준에 맞는 자료를 제공하고, 실제 독해량을 확보할 수 있는 학습과 과제를 설계하며, 읽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정에서는 정해진 학습 시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돕고, 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부모라도 이러한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 학부모가 직접 어려운 문장을 해석해 주거나 문제를 만들어 평가할 필요는 없다. **아이가 영어를 충분히 접하고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 부모의 역할과 학습 환경의 구체적인 설계 방법은 10장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08. 영어문해력의 성장은 어떻게 확인할까?

영어문해력은 단기간에 완성되지 않으며, 한두 번의 시험 점수만으로 충분히 평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학교 내신과 별도로 현재의 읽기 수준과 영어 능력을 점검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Star Reading은 영어 읽기 수준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며, NELT와 같은 영어 능력 진단평가는 어휘·문법·독해·듣기 등의 영역별 강점과 약점을 살펴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범어도서관 2층 국제자료실에서는 Star Reading 영어 읽기 수준 진단검사를 무료로 상시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예약도 필요하지 않다. 다만 검사 이용 조건과 운영시간은 방문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범어도서관의 영어 원서 읽기 프로그램을 활용하자

범어도서관에서는 Star Reading 진단검사 외에도 학부모들이 활용할 만한 유익한 영어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연 2회 선착순으로 참가자를 모집해 6개월간 진행하는 영어 원서 읽기 프로그램이다. 저자가 이용하던 당시 참가비는 1만 원으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아이에게 꾸준한 영어 독서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었다. 필자의 아이들도 몇 년 동안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특히 저학년 프로그램은 신청이 빠르게 마감되곤 했다. 신청에 성공하기 위해 접수 당일, 신청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PC방에 가서 컴퓨터 앞에 앉아 기다렸던 기억이 난다.

돌이켜 보면 영어를 직접 가르치는 일 못지않게, 아이가 영어책을 꾸준히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찾아주는 일도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었다. **부모가 반드시 영어를 잘해야 아이의 영어교육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이가 영어를 접하고 꾸준히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찾아 마련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범어·만촌 지역 학부모라면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영어 독서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기를 권한다.

※ 모집 시기와 인원, 참가비 및 운영 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범어도서관의 최신 공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NELT는 NE능률이 제공하는 영어 능력 진단평가로, 개인적으로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응시를 신청할 수 있다.

https://nelt.neflow.ai/

최근 필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등록한 한 신입생의 영어 실력이 매우 뛰어나 인상적이었던 적이 있다. 학생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동안 개인적으로 매년 한 차례씩 NELT에 응시하며 자신의 영어 실력을 점검해 왔다고 한다. 이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특정 학원을 다녔다는 사실이 아니라, 학생의 영어 실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려는 꾸준한 관심과 실천이다. 부모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자녀가 어떤 학원에 다니든 외부 평가를 통해 현재의 영어 실력을 점검하고 성장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다만 검사마다 측정하는 영역과 점수 체계가 다르므로 서로 다른 검사 결과를 단순히 비교해서는 안 된다. 가능하면 같은 평가 체계를 활용해 일정한 간격으로 결과를 축적하고, 영역별 강점과 약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영어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교재를 얼마나 빨리 끝냈는지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학생의 실제 영어 능력이 얼마나 성장했는가 하는 점이다.**

3장. 중학교 100점과 고등학교 1등급 사이

01. 중학교와 고등학교, 같은 영어시험이 아니다

중학교 영어시험에서 100점을 받은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예상보다 낮은 성적을 받는 경우가 있다. 중학교에서 꾸준히 90점 이상을 받았던 학생도 고등학교 첫 시험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렇다고 중학교 영어시험이 쉽다는 뜻은 아니다. 범어·만촌 지역의 일부 중학교에서는 상당한 양의 시험범위와 까다로운 문법, 고난도 서술형 문제가 출제된다.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학습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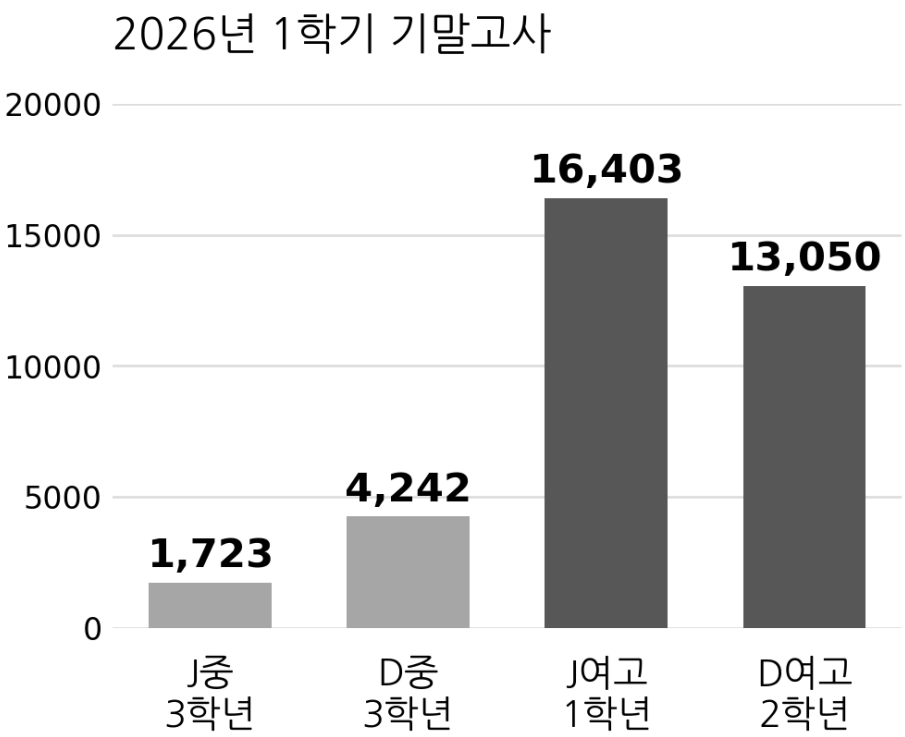
그러나 중학교 영어와 고등학교 영어는 시험의 성격과 요구하는 능력에서 차이가 있다. 중학교 내신에서는 정해진 교과서와 외부지문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비했는지가 중요하다. 학교에 따라 낯선 지문과 고난도 응용문제도 출제되므로 단순한 암기 시험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고등학교에서도 시험범위 분석과 반복학습은 중요하다. 하지만 중학교보다 훨씬 많은 분량의 영어 지문을 학습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복잡한 문장 구조와 추상적인 소재, 세밀한 어법 판단, 글의 논리적 전개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해진다.

여기에 평가 방식의 차이도 있다. 중학교 영어는 기본적으로 성취평가를 적용하지만, 고등학교의 주요 영어 과목에서는 상대적인 석차등급이 산출된다. 2025학년도 고교 신입생부터 적용된 5등급제에서 일반적인 석차등급 산출 과목의 1등급 비율은 상위 10%다. 따라서 중학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고등학교에서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02.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실제 시험범위는 얼마나 다를까?

범어·만촌 지역에서 시험범위가 많고 시험 난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중학교 두 곳과 고등학교 두 곳의 같은 학기 영어 시험범위를 비교해 보았다. **2026년 1학기 기말고사를 기준으로, 해당 학기의 실제 시험범위로 제시된 모든 영어 독해 지문의 단어 수를 세어보았다.**

학교	학년	시험범위 총 단어 수
J중	중3	1,723개
D중	중3	4,242개
J여고	고1	16,403개
D여고	고2	13,050개



※ 학교명은 익명으로 표기했으며, 2026년 1학기 기말고사의 실제 시험범위를 비교한 자료다. 서로 다른 학교와 학년의 사례이므로 모든 학교의 시험범위가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시험범위가 서서히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중학교 두 곳 중 시험범위가 더 넓은 D중 3학년의 단어 수는 4,242개였다. 반면 J여고 1학년은 16,403개로, 약 3.9배에 달했다. J중 3학년의 1,723개와 비교하면 J여고 1학년의 시험범위는 약 9.5배다. D여고 2학년의 시험범위 역시 13,050개로, 두 중학교보다 훨씬 많은 분량이었다.

물론 시험범위의 단어 수가 시험의 난도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다. 지문의 내용과 문장 구조, 문제 유형에 따라서도 난도는 달라진다. 그러나 이처럼 큰 시험범위의 차이는 고등학교 진학 후 학생들이 마주하는 학습 부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중학교에서 제한된 시험범위를 충분히 반복해 100점을 받는 능력과, 고등학교에서 방대한 시험범위를 소화하며 1등급을 받는 능력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고등학교에서는 훨씬 많은 영어 지문을 읽고 이해해야 한다. 중학교 때처럼 모든 문장을 여러 차례 반복해 익히는 방식만으로는 학습량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결국 처음 보는 문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글의 핵심과 논리적 흐름을 파악하는 영어문해력이 중요해진다. **고등학교 영어를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고등학교 교재를 미리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많은 영어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일이다.**

03. 문장의 길이와 구조도 달라진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영어의 차이는 시험범위의 양뿐만이 아니다. 학생들이 읽고 이해해야 하는 문장의 길이와 구조, 글의 소재도 달라진다.

다음 두 문장을 비교해 보자.

예문 1

People learn better when they understand why something is important.

사람들은 어떤 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할 때 더 잘 배운다.

예문 2

The extent to which students benefit from instruction depends not merely on the information presented but also on how effectively they connect it to what they already know.

학생들이 수업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얻는지는 제시된 정보뿐 아니라 그것을 기존 지식과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결하는가에도 달려 있다.

첫 번째 문장은 비교적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 두 번째 문장에서는 여러 문법 요소를 동시에 파악해야 한다.

the extent to which: 학생들이 도움을 얻는 정도

not merely A but also B: A뿐 아니라 B도

the information presented: 제시된 정보

how effectively they connect it: 그들이 그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결하는가

what they already know: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각각의 문법 요소를 아는 것뿐 아니라, 여러 구조가 하나의 문장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악해야 한다. 문법책에서 관계사와 명사절, 분사, 병렬구조를 각각 배웠다고 해서 이러한 문장을 곧바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영어 지문에서 복잡한 구조를 반복적으로 만나고, 실제 독해에 적용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문법을 배웠다는 것과 배운 문법을 활용해 복잡한 문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것은 다른 문제다.**

04. 문장 해석을 넘어 글의 논리까지 이해해야 한다

고등학교 영어에서는 개별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에 더해 글 전체의 의미와 논리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를 구별하고, 문장 사이의 대조와 인과관계를 파악하며, 서로 다른 표현으로 제시된 공통된 의미를 읽어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 두 문장을 살펴보자.

Many students fail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practice.

많은 학생은 연습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The value of repeated training is often underestimated by learners.

반복적인 훈련의 가치는 학습자들에 의해 종종 과소평가된다.

두 문장은 사용된 어휘와 문장 구조가 다르지만, 학습자들이 연습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다는 공통된 의미를 전달한다.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에서는 이런 패러프레이즈를 이해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특히 빈칸 추론, 주제와 제목, 내용 일치 및 불일치 등의 문제에서는 지문의 표현을 그대로 암기하는 것보다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다만 표현이 비슷하다고 해서 언제나 동일한 뜻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주체와 정도, 원인, 결과 등 의미의 세부적인 차이까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은 단기간에 문제 풀이 요령을 익힌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충분한 독해량을 통해 다양한 문장과 글을 반복해서 읽으며 길러야 한다.

05. 고등학교 영어는 중학교 때 준비해야 한다

중학교 학생이 고등학교 영어를 준비한다는 말을 들으면 흔히 고등학교 교과서나 수능 문제집을 미리 공부하는 모습을 떠올린다. 그러나 선행학습의 진도가 빠르다고 해서 반드시 고등학교 영어를 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학생의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능력을 꾸준히 기르는 일이다.

첫째, 다양한 영어 지문을 충분히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중학교 내신 시험범위에만 독해학습을 한정하지 않고, 픽션과 논픽션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영어 지문을 꾸준히 읽어야 한다.

둘째, 복잡한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관계사, 분사, 수동태, 가정법 등 여러 문법 요소가 결합된 문장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셋째, 문맥 속 어휘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단어의 대표적인 뜻을 암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문장에서 다양한 의미와 쓰임을 접해야 한다.

넷째, 글 전체의 논리와 중심 생각을 파악해야 한다.

문장 하나하나를 해석하는 것에서 나아가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 대조와 인과관계, 패러프레이즈를 이해해야 한다.

다섯째, 배운 문법을 활용해 정확한 영어문장을 직접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을 선택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어와 동사를 정하고, 시제와 수일치, 수식 관계를 고려해 문장을 만드는 능력도 중요하다. 이러한 능력을 중학교 시절부터 꾸준히 쌓아두면 고등학교의 방대한 시험범위를 공부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중학교 내신을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학교 시험범위 안에서만 영어학습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중학교 100점이 고등학교 1등급을 보장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시험이 어려워지기 때문만이 아니다. 고등학교에서는 훨씬 많은 영어를 제한된 시간 안에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영어 준비의 핵심은 선행 진도의 양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영어를 충분히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실력을 만드는 데 있다.

4장. 초등 영어, 무엇을 완성해야 할까?

초등 영어는 영어에 대한 흥미와 친숙함에서 출발한다. 영어를 듣고 따라 말하며, 이야기책을 읽고, 영어라는 언어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과정은 중요하다. 그러나 초등 고학년까지 쉬운 영어책을 읽거나 단편적인 문제를 푸는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초등학교 시절은 앞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배우게 될 영어의 기초 체력을 충분히 기를 수 있는 시기다. 영어 원서 읽기를 통해 독서 습관과 어휘력을 기르고, 다양한 논픽션을 통해 설명문과 논증문의 구조를 익히며, 체계적인 영문법 학습을 통해 복잡한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까지 발전시켜야 한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빠른 선행학습이 아니라, 초등학교 시절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영어학습의 시간과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01. 원서 읽기에서 고등 독해까지

초등 영어학습은 학생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1단계 | 픽션 중심의 영어 독서

영어학습의 초기에는 이야기 중심의 영어 원서 읽기가 중요하다. Oxford Reading Tree 등의 단계별 리더스북을 활용해 영어 문장에 익숙해지고, 점차 다양한 이야기책으로 독서 범위를 넓힌다. 이야기책은 등장인물과 사건의 흐름을 따라가며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어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충분한 영어 독서 경험이 쌓이면 학생의 수준에 따라《Matilda》와 같은 장편 이야기책으로 확장할 수 있다.

다만 유명한 영어 원서를 읽는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학생이 줄거리를 이해하고 책의 내용을 스스로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 어려운 책을 끝까지 읽었다는 사실보다, 자신에게 적합한 수준의 책을 꾸준히 읽으며 충분한 독서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어 원서 읽기에 재미를 더하는 독서 퀴즈

영어 원서를 읽은 뒤 간단한 퀴즈를 풀어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책을 읽고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 또 하나의 즐거운 활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운영하는 학원에서는 모든 영어 원서 교재에 독서 퀴즈를 만들어, 책을 읽은 후 학생들이 풀어보도록 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학생들이 이를 부담스러운 시험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독서에 이어지는 하나의 활동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퀴즈의 난도다. 독서 퀴즈는 학생의 영어 실력을 평가하기 위한 어려운 시험이 아니다. 책의 줄거리와 주요 인물, 사건의 흐름을 이해했다면 가볍게 읽은 학생도 충분히 맞힐 수 있도록 아주 쉽게 구성해야 한다. 퀴즈가 어려워지면 학생들은 책을 즐기기보다 정답을 찾기 위해 읽게 될 수 있다. 독서 퀴즈의 목적은 성적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읽은 내용을 되새기며 영어책 읽기의 즐거움을 더하는 데 있다.**

요즘은 ChatGPT와 같은 AI 도구를 활용해 독서 퀴즈를 비교적 쉽게 제작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의 수준에 맞게 질문을 고르고,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을 묻지 않도록 조절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감각과 노력이 필요하다. 독서 퀴즈의 제작 방법이나 샘플 자료가 필요한 학부모는 저자에게 개인적으로 요청해도 좋다. **학원 수강 여부와 관계없이 기꺼이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실제 독서 퀴즈 샘플 — A Good Turn (Oxford Reading Tree Level 8)

1. What club did Chip join in the story?

① A football club ② The Cub Scouts ③ A music band ④ An art class

2. Where did the magic key take Chip, Wilf, and Nadim?

① Brownsea Island ② A desert island ③ A big castle ④ Ancient China

3. When did the first Scout camp take place?

① In 2015 ② Over 1,000 years ago ③ In 1907 ④ Last week

위 문제는 Oxford Reading Tree Level 8의 《A Good Turn》을 읽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독서 퀴즈의 일부다. 문항을 살펴보면 복잡한 문법이나 세부적인 어휘를 묻지 않는다. 이야기의 주요 인물과 사건, 배경을 이해했는지 가볍게 확인하는 문제들이다. 이처럼 독서 퀴즈는 학생에게 또 하나의 어려운 시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 **책을 즐겁게 읽었다면 누구나 부담 없이 풀 수 있는 수준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2단계 | 픽션과 토플형 논픽션의 병행

영어 이야기책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면 논픽션 읽기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좋다. 픽션은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논픽션에서는 과학, 역사, 사회, 문화, 심리 등 다양한 분야의 사실과 개념을 설명하고,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이야기책에서는 인물의 행동과 사건의 전개를 이해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면, 논픽션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와 결과, 개념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읽기 경험은 이후 고등학교 영어에서 접하게 되는 설명문과 논증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된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학생 수준에 맞는 토플형 논픽션 독해 교재다. 다만 토플형 독해 교재를 공부한다고 해서 어린 학생에게 실제 TOEFL 시험 수준의 어려운 지문을 읽히자는 뜻은 아니다. 학생의 수준에 맞는 어휘와 문장으로 구성된 설명문과 논증문을 단계적으로 접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픽션을 모두 마친 뒤 논픽션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두 종류의 글을 함께 읽으며 독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좋다.

3단계 | 고1 모의고사 수준의 독해력

초등 영어학습의 도전적인 최종 목표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수준의 영어 지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1 모의고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거나 제한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다. 고1 수준의 영어 지문을 접했을 때 문장 구조를 파악하고, 어휘의 문맥상 의미를 이해하며, 글의 중심 내용과 논리적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독해력을 초등학교 시절에 충분히 확보한다면 중학교 3년 동안 더욱 높은 수준의 영어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다만 모든 초등학생이 같은 시기에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영어학습을 시작한 시기와 현재 수준, 학습 속도에 따라 도달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목표는 높게 설정하되 학습 과정은 학생의 실제 능력에 맞춰 단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02. 영어책을 많이 읽는 것과 제대로 읽는 것은 다르다

영어 원서 읽기는 초등 영어학습의 중요한 활동이다. 하지만 영어책을 많이 읽었다는 사실만으로 영어문해력이 충분히 성장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책의 줄거리를 대략 이해하면서 읽는 학생과, 문장 속 단어의 의미와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며 읽는 학생은 독해의 깊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반대로 모든 문장의 의미를 완벽하게 분석하려고 한다면 독서의 흐름이 끊기고 충분한 독서량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영어 원서 읽기에서는 읽기의 목적에 따라 접근 방식을 구분해야 한다. **독서량을 확보하기 위한 읽기에서는 전체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데 집중한다.** 모르는 단어가 일부 있더라도 문맥을 통해 의미를 짐작하고,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며 읽을 수 있도록 한다. **정확한 독해력을 기르기 위한 읽기에서는 문장의 의미와 구조를 세밀하게 확인한다.** 복잡한 문장을 분석하고, 어휘가 문맥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며, 글의 중심 생각과 세부 내용을 구별한다.

두 가지 활동은 모두 필요하다. 원서를 읽는 즐거움을 유지하면서도 학습 수준이 높아질수록 정확한 독해 능력을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 학부모는 자녀가 몇 권의 책을 읽었는지만 확인하기보다, 현재 읽는 책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다만 부모가 영어 실력을 직접 평가하기 위해

어려운 질문을 하거나 모든 내용을 번역하도록 요구할 필요는 없다. 책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사건, 새롭게 알게 된 사실 등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내용을 이해하며 읽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03. 영문법은 문장 속에서 작동해야 한다

초등 고학년부터는 중학 영문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 문장 형식, 시제, 조동사, 수동태, 준동사, 관계사, 접속사 등 주요 문법 개념을 익히고, 이를 실제 독해에 활용하는 연습을 병행해야 한다. 문법책에서 관계사를 배웠다고 해서 관계절이 포함된 복잡한 문장을 자동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예문 1

The boy sitting next to the window is my brother.

창문 옆에 앉아 있는 소년은 내 형제다.

이 문장에서 sitting next to the window는 The boy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문장의 중심은 The boy is my brother이며, sitting next to the window가 주어를 수식한다. 단어의 뜻을 아는 것뿐 아니라 문장의 중심 구조와 수식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예문 2

The book written by a famous scientist changed the way people understood the universe.

유명한 과학자가 쓴 그 책은 사람들이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바꾸었다.

이 문장에서 written by a famous scientist는 The book을 수식하는 과거분사구다. 문장의 중심 동사는 changed이며, the way people understood the universe는 사람들이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이라는 의미다. 이처럼 여러 문법 요소가 하나의 문장에 함께 등장하면 각각의 규칙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문법 요소들이 문장 안에서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문법학습은 두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문법 개념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정리하는 것이다.

둘째, 배운 문법을 실제 영어 지문에서 반복적으로 만나며 자연스럽게 읽어내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문법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문장을 읽는 순간 배운 문법이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04. 어휘와 문법, 독해는 따로 공부하는 과목이 아니다

초등 영어학습에서는 원서 읽기, 어휘 암기, 문법, 독해 문제 풀이가 각각 별도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개별 학습도 필요하다. 하지만 학생의 실제 영어 실력을 높이려면 이 활동들이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영어 원서를 읽으며 새로운 어휘를 만나고, 문법책에서 배운 관계절이나 분사구문을 실제 문장 속에서 확인하며, 익숙해진 표현을 듣고 따라 읽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각각의 학습 활동이 서로를 보완한다.

학습 요소	연결해야 할 활동
영어 원서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며 충분히 읽기
논픽션 독해	개념·원인·결과·주장과 근거 이해하기
영문법	규칙을 배우고 실제 문장에서 확인하기
어휘	단어 암기와 문맥 속 반복 노출 병행하기
문장 구조	다양한 문장에서 배운 구조를 반복해서 만나기
소리영어	수준에 맞는 음원을 듣고 따라 읽기

특히 충분한 독해량은 이런 학습 요소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어 지문을 많이 읽으면 이미 배운 어휘를 다양한 문맥에서 다시 만나게 되고, 문법책에서 익힌 문장 구조를 반복해서 접할 수 있다. 영어문해력은 어휘, 문법, 독해를 따로 공부한 결과가 아니라 이러한 능력이 실제 읽기 과정에서 함께 작동할 때 성장한다.

05. 초등 영어에서 선행학습보다 중요한 것

범어·만촌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 영문법이나 고등학교 수준의 영어 독해를 공부하는 학생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높은 수준의 영어를 일찍 접하는 것이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학생의 능력이 충분하다면 학년보다 높은 수준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교재의 수준과 학생의 실제 실력은 구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학교 문법책을 여러 권 끝냈더라도 문법 요소가 뒤섞인 새로운 문제에서 계속 틀린다면, 배운 지식이 충분히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고등학교 수준의 독해 교재를 공부하더라도 교사의 설명과 해석에 계속 의존해야 한다면 그 수준의 글을 스스로 읽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높은 수준의 교재를 공부했는가가 아니라, 그 수준의 영어를 실제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영어학습의 목표를 교재 진도나 선행학습의 속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학생의 현재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는지 살펴야 한다. 초등학교 시절에 확보해야 할 것은 빠른 진도보다 충분한 영어 노출량과 정확한 이해 능력이다.

06. 초등 영어학습에서 부모가 확인해야 할 것

초등학생은 자신의 영어학습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아직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적절한 학습 환경을 마련하고, 현재의 학습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부모가 직접 영어를 가르치거나 모든 학습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중심으로 아이의 영어학습을 살펴보면 좋다.

첫째, 충분한 영어 읽기 시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학원 수업과 과제를 포함해 일주일 동안 실제로 영어를 읽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다.

둘째, 픽션과 논픽션을 균형 있게 읽고 있는가?

이야기책만 읽거나 독해 문제집만 푸는 방식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글을 경험하도록 한다.

셋째, 배우는 문법이 실제 독해와 연결되고 있는가?

문법 진도가 얼마나 빠른지보다 배운 문법을 새로운 영어문장에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넷째, 어휘 암기와 문장 속 반복 노출이 병행되고 있는가?

단어장을 통해 어휘를 익히는 것과 실제 영어 지문에서 다양한 쓰임을 접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현재의 영어 실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는가?

학교 성적이나 학원 교재의 수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영어 읽기 수준과 문법·어휘·독해 능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학습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면 학생은 자신의 수준에 맞춰 영어 실력을 꾸준히 발전시킬 수 있다. 초등 영어학습의 목표는 중학교 시험을 미리 준비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중학교 3년을 거쳐 고등학교에서도 충분한 영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영어를 읽고 이해하는 탄탄한 기초를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5장. 중학교 3년은 고등 영어를 준비하는 시간

01. 한 학기의 점수와 3년의 실력

중학교 영어 내신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은 중요하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시험에 대비하는 과정은 학생에게 필요한 학습 경험이다. 그러나 중학교 3년 전체를 학교 시험범위의 반복학습에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앞서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영어 시험범위가 크게 늘어나고 지문의 난도도 높아진다. 중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좁은 시험범위를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고등학교에서는 훨씬 많은 영어 지문을 제한된 시간 안에 이해하고 분석해야 한다. 중학교 때 익숙한 지문을 반복해서 공부하는 데에만 의존했다면, 고등학교에서 방대한 시험범위를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려면 중학교 시절부터 충분한 독해량을 확보하고, 복잡한 문장 구조와 다양한 어휘에 익숙해져야 한다. 중학교 내신을 준비하는 시간과 고등 영어를 위한 실력을 축적하는 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해야 하는 이유다. **중학교 내신은 매 학기의 과제이지만, 고등 영어는 중학교 3년 전체의 과제다.**

02. 평상시와 내신 기간의 학습은 달라야 한다

중학생의 영어학습은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나는 학교 시험이 없는 평상시이고, 다른 하나는 내신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두 시기의 학습 목표는 분명하게 다르다.

평상시: 장기적인 영어 실력 축적

평상시에는 학교 시험범위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영어 지문을 충분히 읽어야 한다. 토플형 논픽션과 수준에 맞는 수능모의고사 지문을 활용해 과학·역사·사회·문화·심리 등 다양한 분야의 글을 접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휘력을 확장하고, 관계사·분사·가정법 등 여러 문법 요소가 결합된 복잡한 문장을 분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문법학습 역시 단원별 개념 학습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미 배운 문법 요소가 뒤섞인 전 범위 모의고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틀린 문제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다시 풀면서 문법 지식을 유지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고등학교 내신에서 요구하는 객관식 어법 문제와 서술형 영작을 꾸준히 연습할 필요가 있다. **평상시의 영어학습은 다음 시험을 위한 예습이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영어 실력 자체를 쌓는 과정이어야 한다.**

내신 기간: 학교별 시험범위 집중학습

학교 시험이 다가오면 학습의 중심을 내신 대비로 완전히 전환한다. 교과서와 외부지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학교별 출제 경향을 확인하며, 문법과 서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습한다. 학교에 따라 시험범위와 문제 유형이 다르므로 동일한 방법으로 모든 학교의 시험을 준비할 수는 없다. 특히 외부지문의 내용과 어휘,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원문의 표현이 바뀌어 출제되는 변형문제에도 대비해야 한다.

내신 준비는 일반적으로 시험 전 2~3주를 기본적인 집중 기간으로 삼을 수 있지만, 학생의 현재 수준과 학교별 시험범위에 따라 준비 기간은 조정해야 한다. 이 기간에는 평상시 진행하던 토플형 논픽션과 수능모의고사 독해, 전 범위 문법학습 등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학교 내신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내신 기간에 장기적인 실력 학습을 조금이라도 유지하려고 무리할 필요는 없다. 한정된 시간 안에서 학교 시험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우선이다.

학습 영역	평상시	내신 기간
독해	토플형 논픽션·수능 지문	교과서·외부지문 분석
어휘	폭넓은 어휘 확장과 반복 노출	시험범위 핵심 어휘
문법	단원별 학습 + 전 범위 모의고사	시험범위 문법·어법
서술형	다양한 문장 구성 연습	학교별 서술형 유형 대비
평가	누적 문법 평가와 오답 재평가	기출 분석·변형문제
학습 목표	장기적인 영어 실력 성장	해당 학기 내신 성적 향상

중요한 것은 내신 기간에도 모든 학습을 조금씩 이어가는 것이 아니다. **시험기간에는 시험에 집중하고, 시험이 끝나면 지체 없이 장기적인 실력 향상을 위한 학습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03. 시험범위에 갇힌 영어학습을 경계해야 한다

중학교 내신을 준비하다 보면 시험범위에 포함된 지문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게 된다. 교과서와 외부지문을 분석하고, 핵심 문장을 암기하며, 변형문제를 푸는 과정은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익숙한 지문을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과 처음 보는 지문을 스스로 이해하는 것은 다른 능력이다. 예를 들어 이미 여러 차례 해석하고 설명을 들은 지문에서는 높은 정답률을 보이지만, 같은 수준의 새로운 지문에서는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는 학생도 있다. 이런 경우 학교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더라도 실제 독해력은 충분히 성장하지 못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시험범위가 크게 증가하므로 모든 문장을 충분히 반복해 익히는 방식만으로 학습량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중학교 시절부터 새로운 영어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경험을 꾸준히 쌓아야 한다. **시험범위 안의 영어를 잘하는 것에서 나아가, 시험범위 밖의 영어도 스스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내신 기간을 제외한 평상시에 충분한 독해량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04. 객관식 판단에서 서술형 영작으로

중학교 영어학습에서는 문법 문제의 정답을 고르는 능력과 정확한 영어문장을 직접 만드는 능력을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 객관식 문제에서는 이미 제시된 선택지 중 올바른 표현을 고르면 된다. 그러나 서술형에서는 문장의 주어와 동사를 직접 결정하고, 시제와 수일치, 수식 관계 등을 고려해 문장을 구성해야 한다.

다음 두 문장을 비교해 보자.

예문 1

The book was written by a famous scientist.

그 책은 유명한 과학자에 의해 쓰였다.

이 문장에서 was written은 수동태로 이루어진 문장의 중심 동사다.

예문 2

The book written by a famous scientist influenced many people.

유명한 과학자가 쓴 그 책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다.

두 번째 문장의 written by a famous scientist는 The book을 수식하는 과거분사구다. 문장의 중심 동사는 influenced이며, written은 문장의 중심 동사가 아니다. 문법책에서 수동태와 분사를 각각 배웠더라도 두 문장의 구조를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한다면 실제 독해와 영작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한 뒤에는 배운 문법을 활용해 새로운 문장을 직접 만드는 연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우리말 문장을 영어로 표현해 볼 수 있다.

영작 연습

유명한 과학자가 쓴 그 책은 많은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어인 The book을 정하고, written by a famous scientist로 주어를 수식하며, 중심 동사를 적절하게 선택해야 한다. 이처럼 문장 구조를 이해하고 직접 구성하는 연습은 고등학교 서술형 문제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된다. 서술형 학습의 목적은 시험에 나올 문장을 암기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배운 문법을 활용해 처음 보는 내용도 정확한 영어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05. 문법은 단원별 학습에서 종합적인 활용으로

중학교 3년 동안 학생들은 시제, 수동태, 관계사, 준동사, 가정법 등 주요 문법을 반복해서 배운다. 그러나 문법책을 여러 권 끝냈다는 사실이 문법 실력의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문법 교재에서는 일반적으로 한 단원에서 특정 문법 요소를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관계사를 배우는 단원에서는 관계사 문제를 풀고, 수동태를 배우는 단원에서는 수동태 문제를 푼다. 이러한 학습은 문법 개념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어떤 문법 요소를 묻는지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 따라서 배운 문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문법주제별 학습과 전 범위 문법 모의고사를 병행하는 방식**을 추천한다. 전 범위 모의고사에서는 이미 배운 여러 문법 요소를 섞어 출제하고, 학생 스스로 적용해야 할 문법 규칙을 판단하도록 한다. 틀린 문제는 별도로 모아두었다가 2~3주 후 다시 풀어보게 한다. 처음 문제를 풀 때는 틀렸지만 해설을 듣고 이해한 내용을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누적 학습을 통해 문법 지식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다양한 문장에 적용하는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구체적인 전 범위 문법 모의고사 운영 방법과 오답 재평가 방식은 6장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06. 중학교 3년, 실제로 영어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중학교 영어학습을 계획할 때는 3년이라는 시간을 하나의 긴 학습 기간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중학교에서는 학기마다 내신시험을 준비해야 한다. 시험을 앞둔 몇 주 동안은 교과서와 외부지문, 문법과 서술형 문제에 집중해야 하므로 평상시의 독해학습을 그대로 이어가기 어렵다. 이는 잘못된 학습 방식이 아니다. 학교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문제는 시험기간에 장기적인 영어학습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시험기간이 아닌 때에도 장기적인 실력 향상을 위한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중학교 3년 동안 내신시험을 준비하는 시간은 전체 학습 기간의 일부에 불과하다. 나머지 시간은 고등학교 영어에 필요한 독해력과 어휘력, 문법 활용 능력을 축적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험이 끝나면 잠시 쉬고, 다시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정작 영어 자체의 실력을 기르는 학습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다. 중학교 시절에는 상대적으로 좁은 시험범위를 반복해 공부하는 방식으로도 높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시험범위가 늘어난다. 따라서 시험기간이 아닌 평상시에는 학교 시험범위 밖의 다양한 영어 지문을 충분히 읽고, 복잡한 문장 구조와 어휘에 익숙해지는 학습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중학교 3년 동안 실제로 얼마나 많은 영어를 읽고 이해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매 학기 몇 권의 문제집을 끝냈는지보다, 그 기간에 얼마나 다양한 글을 읽었고 새로운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얼마나 성장했는지가 중요하다. **내신 기간에는 내신에 집중하고, 평상시에는 고등 영어를 준비한다.** 이 두 시기의 목적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중학교 3년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07. 시험이 끝난 다음 주가 중요하다

중학교 시험이 끝나면 학생들은 잠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시험 준비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면 어느 정도의 휴식도 필요하다. 그러나 시험이 끝난 뒤 장기간 영어학습의 흐름이 끊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험이 끝나면 평상시의 독해학습으로 돌아가 학교 시험범위 밖의 다양한 영어 지문을 다시 읽어야 한다. 시험에서 드러난 문법과 어휘, 문장 이해의 부족한 부분은 다음 학습에 반영하되, 이미 끝난 시험범위의 반복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학교 시험에서 관계사와 분사 관련 문제를 많이 틀렸다면 해당 문법 개념을 다시 확인하고, 새로운 영어 지문에서도 그 구조를 찾아 읽는 연습을 할 수 있다. 서술형에서 시제나 수일치 오류가 반복되었다면 새로운 문장을 직접 만들어 보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학교 시험에서 확인된 취약점을 다음 학습으로 연결하면 내신 대비 역시 장기적인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중요한 것은 시험이 끝났다는 이유로 학습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시험 준비 전까지 쌓아온 학습의 흐름으로 돌아가 꾸준히 실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중학교 3년은 매 학기 시험 성적을 만드는 시간만이 아니다. 고등학교 영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실력을 축적하는 시간이다.** 당장의 내신 성적을 성실하게 관리하면서도, 시험기간을 제외한 시간을 장기적인 실력 향상에 충실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학교 3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6장. 문법은 왜 배워도 계속 틀릴까?

01. 문법책을 여러 권 끝냈는데도

중학교 영어학습에서 가장 흔히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있다.

“문법책을 여러 권 공부했는데도 문법 문제를 계속 틀려요.”

실제로 시제, 수동태, 관계사, 준동사, 가정법까지 중학 영문법을 여러 차례 공부한 학생도 문법 전 범위에서 문제가 출제되면 예상보다 많은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는 문법을 배우는 방식과 실제 시험에서 문법을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문법 교재는 문법 요소를 주제별로 나누어 설명한다. 시제를 배우는 단원에서는 시제 문제를 풀고, 관계사를 배우는 단원에서는 관계사 문제를 푼다. 이러한 학습은 문법 개념을 처음 배우고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학생은 문제를 풀기 전에 이미 어떤 문법 요소를 활용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관계사 단원을 공부하는 학생은 해당 문제에서 관계사를 떠올리게 되고, 수동태 단원을 공부하는 학생은 수동태와 관련된 규칙을 적용하려고 한다.

반면 실제 학교 시험에서는 어떤 문법 요소를 묻는지 알려주지 않는다. 학생 스스로 문장의 구조와 의미를 파악하고, 여러 문법 요소 가운데 어떤 규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문법 규칙을 이해하는 것과, 여러 문법 요소 가운데 필요한 규칙을 스스로 찾아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은 서로 다른 능력이다.** 따라서 문법 교재를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배운 문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02. 단원별 문법 문제와 전 범위 문법 문제는 다르다

다음 두 가지 학습 상황을 비교해 보자.

상황 A. 수일치 단원을 공부한 직후

The list of books (is / are) on the desk.

책 목록이 책상 위에 있다.

수일치 단원을 공부한 직후라면 학생은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를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이 문장의 주어는 The list of books이며, 주어의 중심은 단수 명사 list다.

따라서 정답은 is다.

상황 B. 여러 문법 요소가 섞인 전 범위 평가

다음 문장에서 알맞은 표현을 고르시오.

1. The list of books (is / are) on the desk.

2. If I (know / knew) the answer, I would tell you.

3. The boy (sitting / sat) by the window is my brother.

4. She has lived in Daegu (since / for) 2020.

5. This is the book (who / that) I bought yesterday.

두 상황에서 첫 번째 문제는 완전히 같다. 그러나 상황 B에서는 수일치, 가정법, 분사, 현재완료, 관계사 등 서로 다른 문법 요소가 함께 출제된다. 학생은 문제를 읽고 어떤 문법 규칙이 필요한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이것이 단원별 문제 풀이와 전 범위 문법 평가의 중요한 차이다. 단원별 학습에서는 개념을 이해하고 규칙을 적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전 범위 평가에서는 그동안 배운 여러 문법 규칙을 기억해 내고, 주어진 문장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문법을 배운 학생에게 필요한 다음 단계는 더 많은 문법책이 아니라, 배운 문법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훈련일 수 있다.**

03. 꾸준한 전 범위 문법 모의고사

효과적인 문법학습을 위해서는 두 가지 학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문법 요소를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배우는 학습이다.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배운 문법 요소 전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모의고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전 범위 문법 모의고사에서는 이미 배운 여러 문법 요소를 섞어 출제해야 한다. 이번 주에 관계사를 배웠다고 해서 관계사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학생이 문제를 읽고 어떤 문법 요소를 활용해야 하는지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모의고사의 난도는 학생의 현재 문법 수준에 맞춰 조정한다. 아직 배우지 않은 문법 요소까지 무리하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학습한 내용 안에서 다양한 문법 문제를 접하도록 한다. 이러한 전 범위 평가는 단순히 점수를 매기는 시험이 아니다. 학생이 어떤 문법 요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혼동하는지 확인하는 진단 과정이기도 하다.

또한 일정한 간격으로 전 범위 문제를 접하면 이전에 배운 문법을 계속 떠올리고 활용하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문법은 한 번 배우고 끝내는 지식이 아니라, 반복해서 꺼내 쓰면서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지식이다.**

학원에서 전 범위 문법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다니는 학원에서 정기적인 전 범위 문법 평가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NE능률의 NELT 문법 모의고사 시리즈처럼 다양한 문법 요소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교재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문제를 많이 푸는 것 자체보다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 틀린 문제를 확인하고, 왜 틀렸는지 이해하며,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 다시 풀어보는 과정까지 이어져야 한다.

04. 오답은 전 범위 모의고사에서 수집한다

문법학습에서 오답 관리는 중요하다. 그러나 어떤 문제를 오답으로 관리할 것인지부터 분명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제안하는 오답 관리는 문법 교재의 모든 틀린 문제를 한꺼번에 모으는 방식이 아니다. **여러 문법 요소가 섞인 전 범위 모의고사에서 틀린 문제만 따로 수집하는 방식이다.** 단원별 문법 문제에서는 학생이 이미 어떤 문법 요소를 묻는지 알고 있다. 반면 전 범위 모의고사에서는 어떤 규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틀린 문제는 학생이 실제로 어떤 문법 요소를 혼동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일치 단원을 공부한 직후에는 정답을 맞혔지만, 전 범위 모의고사에서는 같은 유형의 문제를 틀리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일치 규칙 자체를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법 요소가 함께 제시되었을 때 필요한 규칙을 찾아 적용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 전 범위 모의고사에서 틀린 문제를 학생별로 축적하면 이런 취약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오답 자료에는 문제 출처와 최초 풀이 날짜를 기록하고, 정답과 해설은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05. 2~3주 후, 틀린 문제만 다시 풀게 하자

문법 문제를 틀린 뒤 해설을 듣고 이해했다고 해서 그 내용을 완전히 익혔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명을 들은 직후에는 정답을 맞힐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 범위 모의고사에서 틀린 문제를 별도로 모아두었다가 **2~3주 후 다시 풀어보게 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이때는 처음 풀이한 답과 정답, 해설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처음 틀렸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재평가에서도 같은 문제를 틀린다면 해당 문법 요소가 충분히 정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단순히 정답을 다시 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왜 틀렸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개념을 보완해야 한다.

반대로 재평가에서 정답을 맞혔다면 이전에 혼동했던 문법 요소를 다시 정확하게 적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문제를 다시 맞혔다고 해서 새로운 문장에서도 반드시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필요하다면 유사한 새 문장으로 추가 확인할 수 있다.

전 범위 문법 모의고사와 오답 재평가의 운영 예시

주차	새 전 범위 모의고사	이전 오답 재평가
1주	모의고사 실시	오답 수집
2주	모의고사 실시	오답 수집
3주	모의고사 실시	1주 차 오답 재풀이
4주	모의고사 실시	2주 차 오답 재풀이
5주	모의고사 실시	3주 차 오답 재풀이

이처럼 매주 새로운 문제를 풀면서 일정 시간이 지난 오답을 다시 확인하는 체계를 만들 수 있다. 다만 학생의 수준과 학습량에 따라 모의고사 문항 수와 실시 간격은 조정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새 문제 풀이와 오답 재평가가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학습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다.

06. 문법은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법 문제를 많이 푸는 것만으로 실력이 자동으로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이 정답을 선택할 때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If I had known about the meeting, I would have attended it.

내가 그 회의에 대해 알았더라면 참석했을 텐데.

학생이 had known과 would have attended를 정확하게 선택했다면, 왜 이러한 형태를 사용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가정법 과거완료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과거에 실제로 알지 못했던 상황을 반대로 가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역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과거의 상황을 나타내기 때문에 'If + 주어 + had + 과거분사'와 '주어 + would have + 과거분사'의 구조를 사용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면 문장의 의미와 문법 구조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문법 문제를 풀 때는 정답뿐 아니라 판단의 근거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특히 전 범위 모의고사에서 반복해서 틀리는 문법 요소는 문제를 추가로 많이 푸는 것보다 해당 규칙을 문장 속에서 정확하게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할 수 있다. 문법학습의 목표는 특정 유형의 문제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다. **처음 보는 문장에서도 스스로 문법적 판단을 내리고 그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07. 문법책의 마지막 페이지는 실력의 완성이 아니다

문법책을 한 권 끝냈다는 것은 정해진 학습 내용을 모두 공부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배운 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제 문장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문법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교재의 권수나 진도 속도보다 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유지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단원별 문법학습을 통해 개념을 이해하고, 전 범위 모의고사를 통해 종합적인 적용 능력을 확인하며, 틀린 문제를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다시 풀어보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문법을 처음 배우는 시기에는 개별 개념을 이해하는 학습이 중요하다. 이후에는 배운 문법을 다양한 문장에서 반복적으로 만나고, 필요한 문법 규칙을 스스로 찾아 적용하는 연습이 중요해진다. 결국 문법학습의 목표는 문법 규칙을 많이 알고 있는 학생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어떤 문장을 만나더라도 배운 문법을 활용해 정확하게 읽고, 판단하고, 표현할 수 있는 학생을 만드는 데 있다.**

7장. 단어는 외웠는데 왜 해석이 안 될까?

01. 단어를 많이 외우면 독해를 잘할까?

영어학습에서 어휘력은 매우 중요하다. 충분한 어휘를 알지 못하면 영어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많은 학생이 매일 단어장을 외우고 단어시험을 본다. 이러한 학습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단어를 많이 암기했다고 해서 반드시 영어 독해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 단어장에서 영어 단어와 대표적인 한국어 뜻을 연결하는 능력과 실제 문장에서 그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다음 두 문장을 살펴보자.

예문 1

Please write your address here.

여기에 주소를 적으세요.

예문 2

We need to address this problem.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첫 번째 문장에서 address는 '주소'라는 명사로 쓰였다. 하지만 두 번째 문장에서는 '다루다', '해결하기 위해 대응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사용되었다. address라는 단어를 '주소'라고만 암기한 학생은 두 번째 문장에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단어의 뜻을 얼마나 많이 암기했는가뿐 아니라, 실제 문장에서 그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어휘력은 단어를 아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문맥 속에서 그 단어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실제 독해 능력으로 연결된다.**

02. 하나의 단어에도 여러 가지 쓰임이 있다

영어에는 하나의 단어가 문맥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다음 문장들을 비교해 보자.

예문 1

She runs every morning.

그녀는 매일 아침 달린다.

예문 2

He runs a small business.

그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한다.

예문 3

The meeting ran longer than expected.

회의가 예상보다 길어졌다.

세 문장 모두 ru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의미는 다르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달리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운영하다', 세 번째 문장에서는 예상보다 오래 계속되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단어장에서 run을 '달리다'라고 암기한 것만으로는 이러한 문장들을 모두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run의 가능한 모든 뜻을 처음부터 암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익히고, 이후 다양한 영어문장을 읽으면서 새로운 쓰임을 하나씩 확장해 나가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run a business, run a shop, run a program과 같이 실제로 함께 사용되는 표현을 익히면 문장 속에서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처럼 단어를 개별적인 한국어 뜻으로만 기억하기보다 다른 단어와 결합하는 방식까지 함께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03. 단어는 문장 속에서 익혀야 한다

단어장을 활용한 어휘 암기는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다. 짧은 시간에 많은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를 익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어장 학습만으로는 실제 영어문장에서 필요한 어휘력을 충분히 기르기 어렵다. 예를 들어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The company decided to raise the price of its products.

그 회사는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서 raise는 '올리다'라는 의미다. 하지만 raise라는 단어는 문맥에 따라 여러 표현과 결합한다.

영어 표현	의미
raise prices	가격을 올리다
raise a question	질문을 제기하다
raise children	아이들을 양육하다
raise money	자금을 모으다

단어장에서 raise의 대표적인 뜻을 익힌 뒤 실제 문장에서 이러한 표현을 반복해서 접하면 어휘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진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어의 뜻을 무작정 많이 외우는 것이 아니다.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단어와 함께 사용되는지 이해해야 한다. 어휘를 공부할 때는 단어의 기본 의미를 익히고, 짧은 예문을 읽은 뒤, 다른 영어 지문에서 같은 단어를 다시 만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좋다. **단어장은 어휘학습의 출발점이고, 실제 영어문장은 어휘가 자신의 것이 되는 공간이다.**

04. 외운 단어를 다시 만나야 오래 기억한다

학생이 단어시험에서 100점을 받았다고 해서 그 단어들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실제 독해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 번 암기한 단어는 시간이 지나면서 잊힐 수 있다. 따라서 일정한 간격으로 복습하고, 다양한 영어 지문에서 다시 만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environment라는 단어를 단어장에서 '환경'이라는 뜻으로 익혔다고 하자. 이후 과학 지문에서 natural environment라는 표현을 만나고, 사회 관련 글에서 learning environment라는 표현을 접할 수 있다. 같은 단어지만 서로 다른 문맥에서 사용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반복 노출을 통해 단어의 의미와 쓰임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충분한 독해량이 어휘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야기책, 과학, 역사,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으면 이미 배운 어휘를 서로 다른 문맥에서 반복해서 만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독해만 많이 한다고 모든 어휘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체계적인 단어 암기와 복습도 병행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의도적인 어휘 암기와 실제 영어 지문에서의 반복 노출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다.

05. 같은 단어를 알아도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독해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 가운데는 지문에 등장하는 단어의 뜻을 상당 부분 알고 있으면서도 문장 전체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어휘력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영어문장에서는 단어들이 문법적인 관계를 이루며 하나의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conducted by the researchers were unexpected.

연구자들이 수행한 실험의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이 문장의 단어들을 각각 알고 있더라도 문장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 문장의 중심 주어는 The results이고, 중심 동사는 were다. of the experiment는 results를 설명하며, conducted by the researchers는 experiment를 수식한다. 따라서 문장의 핵심 구조는 다음과 같다.

The results were unexpected.

그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여기에 어떤 실험의 결과인지, 누가 그 실험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추가된 것이다. 이처럼 단어의 뜻을 아는 것과 문장 안에서 단어들이 이루는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서로 다른 능력이다. 어휘학습은 문법과 문장 구조 학습, 충분한 독해 경험과 연결되어야 한다. **단어를 많이 알고 있는데도 해석이 어렵다면 단어 암기량만 늘릴 것이 아니라,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06. 표현이 바뀌어도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고등학교 영어에서는 지문에 사용된 단어와 표현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고 비슷한 의미의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 두 문장을 비교해 보자.

예문 1

The number of people living alone has increased.

혼자 사는 사람의 수가 증가했다.

예문 2

More people are choosing to live by themselves.

더 많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

두 문장은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나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완전히 같은 의미는 아니다. 첫 번째 문장은 혼자 사는 사람의 수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전달한다. 두 번째 문장은 더 많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의미로, 선택이라는 요소가 추가되어 있다. 고등학교 영어에서는 이러한 의미의 공통점과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단순히 비슷한 단어를 찾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문장 전체의 의미와 글의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패러프레이즈 능력은 별도의 학습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지만, 다양한 영어 지문에서 서로 다른 표현을 반복적으로 접하는 경험이 중요하다. 충분한 독해량은 어휘의 다양한 쓰임뿐 아니라 같은 의미를 표현하는 여러 방식에 익숙해지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07. 어휘학습에서 부모가 확인해야 할 것

학부모가 자녀의 어휘학습을 점검할 때 단어시험 점수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단어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과 실제 독해에서 배운 단어를 이해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따라서 단어시험 점수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부분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첫째, 적절한 수준의 어휘를 꾸준히 암기하고 있는가?

현재 학생의 수준보다 지나치게 어려운 단어를 무리하게 외우기보다 실제 독해학습에 필요한 어휘를 체계적으로 익혀야 한다.

둘째, 암기한 단어를 일정한 간격으로 복습하고 있는가?

새로운 단어를 외우는 것뿐 아니라 이전에 공부한 단어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셋째, 단어를 실제 영어문장 속에서 만나고 있는가?

단어장 학습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영어 지문을 통해 어휘의 의미와 쓰임을 확장해야 한다.

넷째, 단어의 뜻을 알아도 해석하지 못하는 문장이 반복되는가?

그렇다면 단어를 더 많이 외우는 것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문법과 문장 구조의 이해가 충분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어휘학습은 영어문해력을 기르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어휘 암기의 최종 목표는 단어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다. **처음 보는 영어 지문에서도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장과 글 전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8장. 소리영어, 언어는 소리가 먼저다

01. 언어는 소리가 먼저다

아이는 글자를 배우기 전부터 주변 사람의 말을 듣고 대화하며 언어를 익힌다. 문자를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도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이는 언어가 반드시 문자에 의존해야만 습득되고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인간의 언어는 문자가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소리를 통해 전달되어 왔다. 언어를 듣고 이해하며, 자신의 입으로 표현하는 과정은 언어 습득의 중요한 기반이다. 그런데 영어학습에서는 문자로 된 교재를 읽고, 단어의 뜻을 암기하고, 문법 문제를 푸는 활동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러한 학습도 중요하다. 특히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 영어에서는 정확한 독해력과 문법 활용 능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영어를 문자로만 배우는 것보다는 실제 영어의 소리를 함께 듣고 따라 말하며 익히는 것이 발음과 리듬, 자연스러운 표현을 익히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영어문장을 눈으로 읽고 이해하는 과정과 귀로 듣고 입으로 표현하는 과정은 서로를 보완한다. **소리영어는 단순히 듣기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학습이 아니다. 영어라는 언어를 보다 자연스럽고 효율적으로 익히기 위한 학습 방법이다.**

02. 영어의 소리를 듣는 것에서 직접 말하는 것으로

중학교 영어시험이나 수능 영어에서 듣기 문제를 대부분 맞히는 학생들은 많다. 특히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듣기보다 독해와 어법에서 성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듣기시험에서 안정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는 학생이라면 듣기 문제 풀이에 많은 시간을 추가로 투자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듣기시험을 잘 본다는 이유로 영어의 소리를 익히는 활동까지 중단할 필요는 없다. 듣기시험에서 정답을 고르는 능력과 영어의 소리와 리듬에 익숙해지는 것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What are you going to do?

너는 무엇을 할 거니?

이 문장을 문자로 보면 각각의 단어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대화에서는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일부 소리는 약하게 발음되거나 줄어들기도 한다. 문장을 눈으로 읽었을 때는 쉽게 이해하던 학생도 실제 원어민의 발화를 들으면 익숙하지 않은 소리의 연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영어의 소리를 익힌다는 것은 개별 단어의 발음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단어와 단어가 이어지는 방식, 문장의 강세와 리듬, 자연스러운 발화의 흐름에 익숙해지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영어의 소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익힐 수 있을까? 물론 영어 음성을 충분히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음원을 틀어놓고 듣기만 하는 수동적인 활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원어민의 음성을 주의 깊게 듣고, 자신의 입으로 비슷하게 따라 말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직접 따라 말해 보면 눈으로 읽을 때는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발음과 강세, 소리의 연결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원어민 음성과 자신의 발화를 비교하면서 자연스러운 영어의 리듬에 익숙해질 수도 있다. 처음부터 긴 문장을 빠른 속도로 따라 말할 필요는 없다. 학생의 수준에 맞는 짧은 문장을 충분히 듣고, 조금씩 따라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이러한 따라 말하기를 체계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에코잉(Echoing)과 섀도잉(Shadowing)**이다.

03. 에코잉과 섀도잉, 어떻게 다를까?

원어민의 음성을 듣고 따라 말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음성을 들은 뒤 따라 말하는 에코잉과 음성을 들으면서 거의 동시에 따라 말하는 섀도잉이다. 두 방법은 모두 영어의 소리와 리듬에 익숙해지는 데 활용할 수 있지만 연습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에코잉(Echoing): 듣고 나서 따라 말하기

에코잉은 문장이나 짧은 구절을 들은 뒤 같은 내용을 따라 말하는 방식이다. 처음부터 긴 문장을 한 번에 따라 하기 어려운 학생에게 적합하다. 예를 들어 다음 문장을 연습한다고 하자.

The children were playing in the garden.

아이들은 정원에서 놀고 있었다.

처음에는 문장을 짧은 구절로 나누어 듣고 따라 말할 수 있다.

The children / were playing / in the garden.

음성을 들은 뒤 잠시 멈추고 같은 표현을 따라 읽는다. 이때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뿐 아니라 원어민 음성의 강세와 리듬을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 하도록 한다. 익숙해지면 여러 구절을 연결하여 한 문장 전체를 따라 말한다.

섀도잉(Shadowing): 들으면서 거의 동시에 따라 말하기

섀도잉은 원어민 음성이 나오는 동안 짧은 시간차를 두고 거의 동시에 따라 말하는 방식이다. 에코잉보다 음성을 듣고 처리하면서 동시에 말해야 하므로 학습 부담이 클 수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어려운 지문이나 빠른 음성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학생이 이미 내용을 이해하고 있고, 무리 없이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의 자료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특히 초등 저학년이나 영어 소리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은 에코잉을 먼저 충분히 연습한 뒤 섀도잉으로 확장할 수 있다.

구분	에코잉	섀도잉
방법	듣고 멈춘 뒤 따라 말하기	들으면서 거의 동시에 따라 말하기
적합한 상황	처음 소리학습을 시작할 때	음성과 표현에 익숙해진 뒤
연습 단위	짧은 구절·문장	익숙한 문장·짧은 지문
중점	정확한 발음과 리듬 모방	이어지는 발화와 리듬 따라가기

어느 방법이 더 우수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학생의 현재 수준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고, 점진적으로 연습의 길이와 난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04. 소리영어는 실제로 어떻게 연습해야 할까?

소리영어 학습을 위해 반드시 특별한 교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영어 원서의 오디오북, 독해 교재의 음원, 수준에 맞는 짧은 이야기나 영상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에게는 TED, TED-Ed, BBC Ideas, BBC World Service와 같은 영어 영상 및 음성 자료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과학, 역사, 사회, 문화, 심리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 영어의 소리를 익히는 동시에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실제 자료의 난도는 상당히 다양하다. 초등학생이나 영어학습 초기 단계의 학생에게는 어려운 강연을 무리하게 따라 하도록 하기보다, 내용과 어휘가 비교적 쉽고 길이가 짧은 자료를 선택해야 한다. **소리영어 학습의 핵심은 어려운 자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영어를 충분히 듣고 직접 따라 말하는 데 있다.**

유튜브 영어 영상을 학습 자료로 활용하는 방법 — Language Reactor

유튜브의 영어 영상을 소리영어 학습에 활용하고 싶다면 Language Reactor라는 프로그램을 추천한다. Language Reactor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확장 프로그램이다.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면서 영어 자막과 한국어 번역을 함께 확인할 수 있고, 원하는 문장을 반복해서 듣거나 단어의 뜻을 확인할 수도 있다. 특히 유용한 점은 영상의 영어 스크립트와 번역 내용을 화면에서 확인하고, 지원되는 영상에서는 자막을 내보내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TED-Ed의 짧은 영어 영상을 선택해 먼저 내용을 이해한 다음, 영어 스크립트를 보면서 어려운 어휘와 문장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스크립트를 참고하며 영상을 반복 재생하고, 에코잉이나 섀도잉으로 따라 말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유튜브 영상 하나로 듣기, 독해, 어휘학습, 소리 내어 말하기를 연결할 수 있다. 사용 방법도 비교적 간단하다. 컴퓨터에서 크롬 웹스토어에 접속해 Language Reactor를 검색하고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된다. 이후 유튜브에서 자막이 제공되는 영어 영상을 열어 학습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영상마다 자막 제공 여부가 다르고, 일부 번역 및 내보내기 기능에는 이용 조건이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영어 영상을 단순히 시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용을 이해하고 반복해서 듣고 따라 말하는 학습 자료로 활용해 보자. 스크립트를 구했다면 다음의 순서로 학습하도록 아이를 가이드해보자.

1단계. 먼저 내용을 이해한다.

스크립트와 한글번역을 읽고 문장의 의미와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한다.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리만 기계적으로 반복하기보다는 문장의 의미를 알고 따라 말하는 것이 좋다.

2단계. 원어민 음성을 듣는다.

한 문장 또는 짧은 구절의 음성을 듣고 발음과 강세, 리듬에 집중한다. 모르는 단어의 발음이나 익숙하지 않은 소리의 연결이 있다면 반복해서 들어본다.

3단계. 에코잉으로 따라 말한다.

짧은 구절을 듣고 멈춘 뒤 같은 표현을 따라 말한다. 처음에는 천천히 따라 하고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운 속도로 연습한다.

4단계. 섀도잉으로 확장한다.

문장을 충분히 익혔다면 음성을 들으면서 거의 동시에 따라 말해 본다. 속도가 너무 빠르다면 구절을 짧게 나누거나 더 쉬운 자료를 사용한다.

5단계. 짧게 녹음하고 비교해 본다.

자신이 읽은 음성을 녹음한 뒤 원어민 음성과 비교해 볼 수 있다. 모든 발음을 완벽하게 교정하려 하기보다는 강세와 리듬, 문장 전체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살펴본다. 이러한 활동을 매번 긴 시간 동안 진행할 필요는 없다. 학생이 부담 없이 반복할 수 있는 분량을 정해 꾸준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05. 소리 내어 읽기와 음원 따라 읽기는 다르다

영어책을 소리 내어 읽는 활동은 유용하다. 그러나 혼자 글자를 보면서 읽는 것과 원어민 음성을 듣고 따라 읽는 것은 차이가 있다. 학생이 단어의 발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잘못된 발음으로 반복해서 읽을 수도 있다. 또한 개별 단어를 정확하게 읽더라도 영어 문장 특유의 강세와 리듬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원어민 음성이 제공되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먼저 음성을 충분히 듣고, 발음과 리듬을 따라 한 뒤, 익숙해진 문장을 스스로 읽는 방식으로 연습할 수 있다. 특히 영어 독해 교재에 음원이 제공된다면 이를 듣기시험 대비용으로만 활용할 필요는 없다. 이미 공부한 지문을 듣고 따라 읽는 자료로 활용하면 독해학습과 소리학습을 연결할 수 있다. **영어문장을 이해하는 학습과 그 문장을 듣고 따라 말하는 학습은 서로를 보완할 수 있다.**

06. 초등에서 시작한 소리영어를 중등에서도 이어가자

초등학교 시절에는 영어 노래와 이야기, 원서 오디오북을 통해 영어의 소리를 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학교에 진학하면 학교 내신과 문법, 독해학습에 집중하면서 소리 내어 읽는 활동이 줄어들기도 한다. 입시영어에서 독해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리영어 학습이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중학교 1~2학년까지는 수준에 맞는 음원을 듣고 따라 읽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좋다. 원서의 오디오북이나 독해 교재의 음원을 활용하면 별도의 교재를 추가하지 않고도 소리학습을 병행할 수 있다. 학생이 이미 읽고 이해한 내용을 소리로 다시 접하면서 문장의 발음과 리듬을 익히는 것이다.

다만 소리학습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입해 중요한 독해학습과 문법학습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전체 학습량을 조절해야 한다. 소리영어 역시 단기간에 완성하는 특별한 훈련이 아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 학생의 수준과 학습 여건에 맞춰 꾸준히 이어가는 학습 활동이다. **영어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과 영어의 소리를 듣고 따라 말하는 능력은 함께 발전시켜야 할 언어 능력이다.**

9장. 초등 고학년부터 시작하는 실전 입시영어 준비

영어문해력은 고등학교 영어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기초다. 다양한 영어 지문을 충분히 읽고, 문장 구조와 글의 논리를 이해하는 능력은 단기간에 완성되지 않는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에 이르는 시기에 꾸준히 길러야 한다.

그러나 영어문해력이 중요하다고 해서 영어책을 많이 읽는 것만으로 고등학교 내신에 필요한 모든 능력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고등학교 영어시험에서는 방대한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뿐 아니라, 문법적으로 정확한 표현을 판단하고, 주어진 조건에 맞는 영어문장을 직접 구성하며, 표현이 바뀐 선택지의 의미를 구별하는 능력도 요구한다.

따라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충분한 독해량을 확보하는 장기적인 학습과 함께 어휘, 영문법, 서술형, 수능형 독해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어려운 교재를 일찍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학생의 현재 수준에 맞게 공부하되,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분명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01. 어휘는 양적 확장과 질적 심화를 동시에 진행하자

영어 단어를 공부하는 가장 익숙한 방법은 영한 단어장을 활용하는 것이다. 매일 일정한 수의 단어를 외우고 시험을 보며, 한 권을 마치면 다음 단계의 단어장으로 넘어간다. 이러한 학습은 효율적이고 필요하다. 그러나 단어장의 수준을 계속 높이는 것만으로 실제 독해에 필요한 어휘력이 충분히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고등학교 영어를 준비하는 어휘학습에는 두 개의 트랙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양적인 어휘 확장이고, 두 번째는 질적인 어휘 심화다.**

첫 번째 트랙 — 양적인 어휘 확장

양적인 어휘학습의 목표는 학생이 알고 있는 영어 단어의 수를 꾸준히 늘리는 것이다. 학생의 현재 수준에 맞는 영한 단어장으로 시작해 중등 필수 어휘, 고등 기초 어휘, 수능 수준의 어휘로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모든 단어의 다양한 뜻과 복잡한 용법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암기할 필요는 없다. 우선 대표적인 뜻을 익히고, 일정한 간격으로 복습하면서 익숙한 어휘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하루에 일정한 분량의 단어를 암기하고, 다음 날 이전에 외웠던 단어를 확인하며, 일주일 단위로 누적 복습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한 권을 끝냈을 때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이전 단계의 주요 어휘를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단어시험에서 한 번 정답을 맞힌 것과 실제 독해에서 그 단어를 알아보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양적인 어휘학습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사용해 실제 영어를 읽는 시간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단어장은 독해학습을 대신하는 교재가 아니라, 더 많은 영어 지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기초 학습 자료다.

두 번째 트랙 — 질적인 어휘 심화

질적인 어휘학습의 목적은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실제 영어문장 속에서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다. 독해 교재에 등장하는 주요 어휘를 선정해 대표적인 뜻뿐 아니라 영영풀이, 동의어, 반의어, 다양한 문맥에서의 쓰임을 함께 학습한다. 앞서 7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의 영어 단어는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서로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라고 해서 언제나 같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질적인 어휘학습에서는 단어를 단순히 한국어 뜻과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문장에서 의미를 이해하고 다른 표현과 비교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어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학습 항목	예시
표제어	significant
대표적인 뜻	중요한, 상당한
쉬운 영영풀이	important or large enough to notice
동의어	important, meaningful
반의어	insignificant
실제 표현	a significant change
문장 속 의미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in sales.

이 예문에서 significant는 단순히 '중요한'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증가의 정도가 상당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또한 a significant change와 an important change는 문맥에 따라 비슷하게 쓰일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완전히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어휘의 다양한 의미와 사용 방식을 이해하는 과정은 고등학교 영어에서 요구하는 패러프레이즈 능력과 연결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영영풀이의 난도다. 표제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영어 문장이 지나치게 어렵다면 학생은 단어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또 다른 어려운 단어들을 암기해야 한다. 따라서 영영풀이에는 가능하면 학생이 이미 알고 있는 쉬운 어휘와 문장 구조를 사용해야 한다. 동의어와 반의어 역시 무조건 많이 제시할 필요는 없다. 실제 독해에서 활용도가 높고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중심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다.

두 트랙을 어떻게 병행할까?

양적인 어휘학습은 별도의 영한 단어장을 활용해 꾸준히 진행한다. 질적인 어휘학습은 현재 공부하고 있는 독해 지문에서 중요한 어휘를 선정해 별도로 진행한다. 예를 들어 한 주 동안 독해 지문 여러 개를 학습했다면, 그중 활용도가 높은 어휘를 일정한 수만큼 선정해 영영풀이와 유사 표현, 문맥 속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모든 지문에 등장하는 단어를 깊이 분석할 필요는 없다. 이미 알고 있지만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 글의 중심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어, 학생이 반복해서 혼동하는 어휘를 우선 선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두 학습의 역할은 분명하다. **양적인 학습은 어휘의 폭을 넓히고, 질적인 학습은 어휘의 깊이를 더한다.** 학생이 단어장을 통해 새로운 어휘를 꾸준히 익히면서 독해 지문 속 주요 어휘를 깊이 공부한다면, 단어 암기와 실제 독해 능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

02. 중학 영문법은 빠르게 한 바퀴, 이후에는 반복과 적용

중학교 1학년 문법, 2학년 문법, 3학년 문법이라는 표현은 익숙하다. 학교와 문법 교재에서도 학년에 따라 문법 내용을 나누어 가르친다. 그러나 영어문법 자체가 중학교 학년별로 완전히 다른 세 개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중학 영문법은 기본적인 문장 구조와 품사, 시제, 수동태, 준동사, 관계사 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점차 내용이 확장되는 구조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현재·과거·미래의 기본적인 시제를 배우고, 이후 진행형과 완료형, 여러 시제가 결합된 문장을 학습한다. 수동태도 처음에는 기본적인 형태를 배우지만, 이후 조동사나 완료형 등과 결합한 복잡한 구조를 접하게 된다. 준동사 역시 to부정사와 동명사, 분사의 기본적인 쓰임에서 출발해 더 복잡한 문장 구조로 확장된다.

기본적인 문법의 뼈대	이후 확장되는 내용
품사와 문장 성분	복잡한 수식 관계와 문장 구조
기본 시제	완료형과 다양한 시제의 결합
기본 수동태	조동사·완료형 등과 결합한 수동태
to부정사·동명사·분사	복잡한 준동사 구문
접속사와 관계사	다양한 절의 연결과 수식
기본적인 조건문	가정법
기본 어순	도치·강조 등 특수구문

이러한 문법 요소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년에 걸쳐 순서대로 공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첫 번째 목표는 중학 영문법 전체를 한 번 공부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영문법 학습을 시작할 준비가 된 학생이라면 중학교 1~3학년 과정의 주요 문법 이론을 가급적 이른 시기에 한 번 전체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권한다. 학원에서 제공하는 문법 강의를 활용해도 좋고, 수준에 맞는 인터넷 강의를 이용할 수도 있다. 첫 번째 순환의 목적은 모든 문법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중학 영문법에 어떤 개념들이 있으며, 기본적인 문장 구조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전체적인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물론 학생이 기본적인 문장 구조조차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의를 빠르게 듣기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초가 부족하다면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연습해야 한다. 다만 이미 이해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오래 반복하면서 전체 문법 체계를 학습하는 시점을 늦출 필요는 없다.

첫 순환을 마쳤다면 이론 재학습과 실전 평가를 병행하자

중학 영문법을 한 번 모두 공부한 뒤에는 두 가지 학습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

첫째, 문법 이론을 다시 순환한다. 처음 공부할 때 이해하기 어려웠던 개념을 다시 확인하고, 서로 다른 문법 요소들이 문장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본다. 두 번째, 세 번째로 같은 내용을 학습할 때는 이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더 분명해질 수 있다.

둘째, 전 범위 문법 모의고사를 꾸준히 실시한다. 이론 강의에서 배운 여러 문법 요소가 섞인 문제를 풀면서 어떤 규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학생 스스로 판단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반복해서 틀리는 문제는 다시 이론 강의나 문법 교재로 돌아가 부족한 개념을 보완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문법학습은 다음과 같은 순환 구조로 운영할 수 있다.

중학 문법 전체 1순환 → 이론 재순환 + 전 범위 모의고사 → 부족한 개념 재학습 → 다시 종합 평가

이론 강의와 문제 풀이를 완전히 분리할 필요는 없다. 첫 번째 순환을 마친 뒤부터는 두 학습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전 범위 문법 모의고사에서 틀린 문제를 수집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 다시 풀게 하는 방법은 앞서 6장에서 자세히 설명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문법책을 계속 추가하는 일이 아니다. **배운 문법을 기억하고, 처음 보는 문장에서 필요한 규칙을 스스로 찾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다.**

03. 서술형 영작은 직접 쓰는 양을 충분히 확보하자

중학교와 고등학교 영어 내신에서 서술형은 학생들의 점수 차이를 만들어 내는 중요한 영역 가운데 하나다. 학교에 따라 서술형의 배점과 출제 방식은 다르지만, 문법적으로 정확한 영어문장을 직접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평가 요소라는 점은 공통적이다.
앞서 5장에서는 영어문장을 읽고 구조를 이해하는 능력과 그 구조를 활용해 직접 문장을 쓰는 능력이 다르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서술형 능력은 어떻게 길러야 할까? 답은 비교적 단순하다. **영어문장을 직접 쓰는 연습을 충분히 해야 한다.** 문법 규칙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그 규칙을 활용한 영어문장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술형 실력을 발전시키려면 배운 문법을 활용해 새로운 문장을 직접 구성하는 경험이 반복되어야 한다.

초등 고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자

중학 영문법을 어느 정도 학습한 초등 고학년이라면 중·고등학교 내신형 서술형 훈련을 시작할 수 있다. 처음부터 긴 문장을 쓰거나 복잡한 조건을 여러 개 제시할 필요는 없다. 기본적인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쓰는 것부터 시작해 점차 여러 문법 요소를 활용하도록 한다.

단계	훈련 내용
1단계	주어·동사·시제를 정확하게 사용해 짧은 문장 쓰기
2단계	배운 문법을 활용해 문장 변형하기
3단계	핵심 단어만 제시한 상태에서 문장 구성하기
4단계	우리말 문장을 보고 영어문장 직접 쓰기
5단계	여러 문법 조건을 충족하는 내신형 서술형 해결하기

이때 학생의 수준에 따라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되, 점차 힌트의 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사용할 단어나 문장의 일부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이 진행된 뒤에도 핵심 문법 구조나 시작 표현을 대부분 제공한다면 학생이 스스로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을 충분히 기르기 어렵다. 특히 실제 중·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어떤 문법 구조를 사용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문장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단서를 제공하기보다, 학생이 직접 문법 요소를 선택하고 영어문장을 완성하도록 훈련해야 한다.

서술형은 쓰고, 확인하고, 다시 쓰는 훈련이 필요하다

많은 문장을 써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틀린 문장을 반복해서 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학생이 직접 문장을 쓴 뒤에는 문법적으로 정확한지 확인하고, 틀린 부분을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문장의 시제나 수일치를 잘못 사용했다면 정답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왜 틀렸는지 이해한 뒤 유사한 구조의 새로운 문장을 다시 써보도록 한다. 이처럼 직접 쓰기와 피드백, 재작성을 반복하면 배운 문법을 실제 영작에 활용하는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다니는 학원에서 이러한 훈련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면 별도의 교재를 추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서술형 연습량이 부족하다면 학생의 현재 문법 수준에 맞는 시중의 서술형 교재를 선택해 꾸준히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때 교재의 난도를 무리하게 높이기보다 학생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수준을 높이는 것이 좋다.

학부모가 확인해야 할 것은 서술형 교재를 몇 권 끝냈는지가 아니다. 학생이 처음 보는 우리말 문장을 보고, 필요한 문법과 어휘를 스스로 선택해 정확한 영어문장을 직접 쓸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서술형 능력은 문법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보다, 배운 문법을 활용해 얼마나 정확하게 쓸 수 있는가에서 드러난다.

04. 수능형 독해를 시작하고 중학교 졸업 전까지 발전시키자

고등학교 영어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수능형 독해는 중요한 학습 영역이다. 앞서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시험범위의 양과 지문의 난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수능 영어와 유사한 독해 유형 및 사고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출제된다.

물론 모든 고등학교 내신시험이 수능과 같은 방식으로 출제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에 따라 교과서와 외부지문, 어법과 어휘, 서술형의 비중이 다르다. 그러나 글의 중심 생각을 파악하고, 논리적 흐름을 이해하며,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추론하고, 문장과 문단의 연결 관계를 판단하는 능력은 고등학교 영어에서 중요하게 요구된다. 따라서 **수능형 독해력은 고등학교 내신을 준비하는 영어 실력의 중요한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수능형 독해는 학년보다 실력에 맞춰 시작하자

수능형 독해를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준비한다고 해서 모든 학생에게 곧바로 고1 모의고사 문제집을 풀리자는 뜻은 아니다. 학생이 아직 기초적인 어휘와 문장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수준에 맞는 영어 원서와 논픽션 독해를 먼저 공부해야 한다. 반대로 영어책을 꾸준히 읽어왔고, 기본적인 문장 구조와 어휘를 충분히 익힌 학생이라면 고1 수준의 수능형 독해를 단계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처음에는 문장의 구조와 글의 중심 내용을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문을 활용한다. 주제, 요지, 제목 찾기와 같은 대의파악 문제를 먼저 풀어보게 하자. 이후 학생의 수준에 따라 더 추상적인 소재와 복잡한 논리 구조를 다루는 지문으로 확장한다. 이때 수능형 독해를 시작했다고 해서 원서와 논픽션을 통한 충분한 독해량 확보를 중단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다양한 영어 지문을 꾸준히 읽으며 어휘와 배경지식을 확장하는 학습과 수능형 문제를 해결하는 훈련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좋다.

수능형 독해에서는 무엇을 훈련해야 할까?

수능 영어에서는 단순히 문장 하나를 해석하는 능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된다.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문장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이해하며, 표현이 달라져도 같은 의미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 독해 유형과 필요한 능력은 다음과 같다.

독해 유형	중점적으로 훈련할 능력
주제·제목·요지	글 전체의 중심 생각 파악
주장·목적	글쓴이의 의도와 핵심 주장 이해
빈칸 추론	문맥과 논리를 바탕으로 생략된 의미 추론
글의 순서	문단 사이의 논리적 연결 관계 이해
문장 삽입	앞뒤 문장의 의미 관계와 글의 흐름 파악
함축 의미	표면적인 표현을 넘어 문맥상 의미 이해
내용 일치·불일치	세부 정보와 표현의 의미를 정확하게 비교

이러한 유형을 학습할 때 중요한 것은 문제 풀이 요령만 암기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빈칸 추론 문제에서는 빈칸 주변의 단어만 보고 정답을 추측하기보다 글 전체에서 어떤 생각이 전개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 글의 순서 문제에서는 접속사나 지시어를 찾는 것과 함께 각 문단이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야 한다. 문장 삽입 문제에서도 특정 단어가 반복되는지만 확인하기보다 해당 문장이 들어갔을 때 글의 의미와 논리적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판단해야 한다.

정답을 맞힌 뒤에도 그 선택지가 왜 정답인지, 다른 선택지가 왜 적절하지 않은지 설명할 수 있다면 더욱 좋다. 수능형 독해학습은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는 동시에 실제 영어문해력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이어야 한다.

처음 보는 모의고사로 실제 실력을 점검하자

수능형 독해 교재를 꾸준히 공부했다면 일정한 간격으로 실제 전국연합학력평가의 독해 문제를 활용해 실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학생이 처음 보는 지문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학습한 지문을 다시 풀어 높은 점수를 받는 것과 처음 보는 지문을 스스로 읽고 해결하는 것은 다른 능력이다.

실제 점검에서는 정답률과 함께 해결 시간, 틀린 문제의 유형, 교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답률은 높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 독해 속도를 높이는 훈련이 필요할 수 있다. 반대로 문장 해석은 정확하지만 빈칸 추론이나 글의 순서 문제에서 반복적으로 틀린다면 글 전체의 논리를 이해하는 능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여러 지문에서 어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양적인 어휘 확장과 질적인 어휘 심화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이처럼 수능형 독해 평가는 단순히 몇 점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시험이 아니라, 다음 학습의 방향을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마치는 시점에 제안하는 구체적인 독해 목표는 12장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기준은 저자의 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하는 도전적인 목표이며, 고등학교 내신 1등급을 보장하는 공식 기준은 아니다.

중학교 졸업 전에 무엇을 완성해야 할까?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수능형 독해를 꾸준히 학습했다면, 고등학교 수준의 처음 보는 영어 지문을 스스로 읽고 다양한 독해 유형을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는 수능 영어의 모든 문제를 틀리지 않고 해결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학생의 현재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독해의 난도와 속도를 높여, 고등학교 진학 후 방대한 시험범위를 소화하는 데 필요한 기초 체력을 갖추자는 뜻이다.

학부모가 막연히 학원의 커리큘럼이나 교재 진도만 믿고 기다려서는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어떤 독해 교재를 공부하고 있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그 교재를 공부한 결과 처음 보는 수능형 영어 지문을 얼마나 정확하게 읽고 해결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학생의 수준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부족한 능력을 보완하면서 독해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영어학습은 단순히 고등학교 교재를 미리 공부하는 선행학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휘는 양적으로 확장하면서 질적으로 심화하고, 영문법은 전체 체계를 익힌 뒤 반복적인 이론 학습과 종합 평가를 병행해야 한다. 서술형은 직접 문장을 쓰는 훈련을 충분히 확보하고, 독해는 영어문해력을 꾸준히 발전시키면서 수능형 독해로 확장해야 한다.

네 가지 영역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어느 하나만 공부한다고 다른 영역의 능력이 저절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의 현재 실력에 따라 학습 순서와 비중을 조정하되,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고등학교 영어를 감당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중학교 영어 100점이 고등학교 영어 1등급을 보장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했다면, 이제는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학습을 시작해야 한다.

10장. 부모의 역할은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01. 아이의 의지만으로 충분할까?

영어를 잘하려면 꾸준히 공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학부모는 거의 없다. 영어책을 많이 읽고,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복습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당연해 보이는 학습이 실제로 꾸준히 이루어지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아이에게 매일 영어책을 읽으라고 말한다고 해서 충분한 독서량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단어를 외우라고 지시한다고 해서 배운 어휘가 오랫동안 기억되는 것도 아니다.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자신의 학습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하고 관리하는 일을 전적으로 맡기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의지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필자는 영어학습에서 학생 개인의 의지만큼이나 학습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준에 맞는 책이 준비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영어를 읽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면 학생은 보다 안정적으로 공부를 이어갈 수 있다. 반면 아무리 의욕이 높은 학생이라도 적절한 자료와 학습 계획, 지속적인 피드백이 없다면 장기간 충분한 학습량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물론 환경만 갖춘다고 영어 실력이 저절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 스스로 읽고, 생각하고, 연습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좋은 환경은 학생이 그러한 노력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에게 공부할 의지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데 있다.**

02.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부모도 충분히 도울 수 있다

자녀의 영어교육에 관심은 많지만 직접 영어를 가르칠 자신이 없다는 학부모들이 있다. 특히 아이가 중학교에 진학하고 영어 지문의 수준이 높아지면 부모가 직접 문장을 해석하거나 문법 문제를 설명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보다 영어를 잘해야만 영어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영어를 가르치고 학습 내용을 평가하는 일은 전문성을 갖춘 교사와 교육기관의 역할이다. 부모는 아이가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학습을 꾸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읽을 만한 영어책을 구하기 어렵다면 가까운 도서관을 찾아볼 수 있다. 영어 독서 시간이 부족하다면 가정에서 일정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도울 수 있다. 단어 암기나 과제가 자주 밀린다면 단순히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꾸짖기보다 학습량이 적절한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수 있다. 영어를 직접 가르치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일들은 충분히 가능하다. 앞서 2장에서 소개한 범어도서관의 영어 원서 읽기 프로그램 역시 부모가 학습 환경을 마련하는 좋은 사례다. 필자의 아이들도 여러 해 동안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저학년 모집이 워낙 빠르게 마감되어 접수 시작 전에 PC방에 가서 신청을 준비했던 기억도 있다. 그때 부모가 한 일은 영어 문장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다. 아이들이 영어책을 지속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준 것이었다. 이처럼 영어교육을 위해 부모가 반드시 전문적인 영어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에게 적절한 학습 기회를 찾아주고, 꾸준히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도 중요한 교육적 역할이다.

03. 부모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부모가 자녀의 영어학습을 돕기 위해 반드시 영어를 잘하거나 직접 가르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아이가 자연스럽게 책을 가까이하고, 꾸준히 읽는 생활 습관을 갖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거창한 교육 계획이나 특별한 교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일상에서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첫째,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이와 함께 도서관에 가자.

주말에 한두 시간이라도 아이와 함께 도서관에 가보자. 아이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영어책을 골라 읽는 동안 부모도 옆에서 책을 읽으면 된다. 반드시 영어책일 필요는 없다. 부모는 자신이 좋아하는 소설이나 인문학 서적을 읽어도 좋다.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독서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아이가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을 경험하는 것**이다. 도서관에 가는 일이 자연스러운 주말 활동으로 자리 잡는다면 아이에게 독서는 특별한 숙제가 아니라 일상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둘째, 가능하다면 어린 자녀에게 꾸준히 책을 읽어주자.

유아기와 초등 저학년에는 부모가 직접 영어책을 읽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때 부모의 영어 발음이 완벽할 필요는 없다. 발음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책 읽어주기를 망설이지 않았으면 한다. 아이에게 엄마와 아빠의 목소리는 익숙하고 특별하다. 부모의 목소리로 들었던 이야기와 함께 보낸 시간은 영어학습을 넘어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다. 물론 정확한 영어 발음을 접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영어 원서의 오디오북이나 원어민 음원을 함께 활용하면 더욱 좋다. 하지만 발음에 자신이 없다고 해서 부모가 직접 책을 읽어주는 즐거움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어린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은 영어를 가르치는 시간인 동시에 부모와 아이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다.**

셋째, 저녁에는 부모도 스마트폰을 내려놓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쉬고 싶을 때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어른에게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부모가 스마트폰으로 영상이나 SNS를 보고 있으면서 아이에게만 책을 읽으라고 요구한다면, 아이가 독서에 집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가능하다면 저녁 시간 중 일정한 시간을 정해 온 가족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함께 책을 읽어보자. 아이는 영어 원서를 읽고 부모는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 된다. 처음부터 한 시간씩 독서할 필요는 없다. 하루 15~20분이라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출발이다. **아이에게 책을 읽으라고 말하는 것보다 부모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교육이 될 수 있다.**

넷째, 집 안을 책 중심의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

가정의 물리적인 환경도 아이의 독서 습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거실의 중심에 커다란 TV가 있고, 가족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TV를 켜는 생활과 거실 곳곳에 책이 놓여 있어 언제든 책을 집어 들 수 있는 생활은 다를 수밖에 없다. 가능하다면 거실에서 TV를 없애거나 사용을 줄이고, 그 자리에 가족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책장을 마련해 보자. 꼭 별도의 공부방이나 비싼 책상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식탁이나 거실 한쪽에 작은 독서 공간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 아이의 수준에 맞는 영어책을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두고, 읽고 싶은 책을 스스로 고를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좋다.

중요한 것은 집을 공부만 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책이 특별한 학습 도구가 아니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접하는 물건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다섯째, 독서 시간을 평가의 시간으로 만들지 말자.

부모가 아이와 함께 책을 읽었다고 해서 매번 내용을 확인하고 시험을 볼 필요는 없다. 책을 읽은 뒤 가볍게 어떤 부분이 재미있었는지 이야기하거나, 등장인물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정도로도 충분하다. 어린아이에게는 부모가 책을 읽어주는 경험 자체가 즐거워야 하고, 조금 더 성장한 아이에게는 자신이 고른 책을 자유롭게 읽는 시간이 필요하다. 물론 앞서 소개한 것처럼 책의 줄거리를 확인하는 아주 쉬운 독서 퀴즈를 활용할 수도 있다. 다만 퀴즈 역시 또 하나의 즐거운 활동이어야지 부담스러운 시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독서를 할 때마다 성과를 확인하려 한다면 아이는 책을 읽는 일 자체를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다. 영어책을 읽는 즐거움과 독서 습관이 먼저 자리 잡도록 도와주자. 이 다섯 가지 방법은 부모에게 특별한 영어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함께 도서관에 가고, 어린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고,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집 안에 책을 가까이 두는 일이다.

하나하나는 작은 실천이지만 이러한 경험이 일상에 쌓이면 아이가 영어책을 꾸준히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좋은 영어교육 환경은 반드시 많은 비용을 들여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모의 작은 생활 습관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

부모에게 권하는 두 가지 추천 도서

《아이의 두뇌를 깨우는 하루 15분 책읽어주기의 힘》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꾸준히 책을 읽어주는 일이 독서 습관과 언어 발달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책이다. 부모가 반드시 영어를 잘하거나 전문적인 교육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와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교육적 경험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한다.

《전교 1등의 책상》 1·2권 — 중앙일보 열려라공부팀





뛰어난 학업 성취를 보인 학생들의 공부 습관과 성장 과정을 소개하는 책이다. 1권과 2권 모두 읽어보기를 권한다. 특히 이 책을 읽을 때는 학생들의 공부 방법이나 성적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면 한다. **그 학생들이 어떤 가정환경에서 성장했는지, 부모는 자녀의 독서 습관과 학습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눈여겨보기를 바란다.** 좋은 학습 습관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부모의 관심과 가정의 환경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만한 사례들이 담겨 있다. 아쉽게도 현재 새 책을 구하기 어려우므로 알라딘 등의 중고서점에서 찾아보거나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빌려 읽어보기를 권한다.

04. 좋은 학습 환경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영어학습 환경이라고 하면 조용한 공부방이나 책상, 좋은 교재를 먼저 떠올릴 수 있다. 물론 물리적인 환경도 중요하다. 하지만 영어 실력을 성장시키는 학습 환경은 그보다 넓은 의미를 가진다. 필자는 좋은 영어학습 환경에 다음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학생의 수준에 맞는 학습 자료

영어책이나 독해 교재가 지나치게 어렵다면 학생은 스스로 읽기보다 다른 사람의 해석과 설명에 의존하게 된다. 반대로 너무 쉬운 자료만 오랫동안 반복한다면 더 높은 수준의 영어를 이해하는 능력을 발전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의 영어 실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자료와 조금 더 높은 수준의 학습 자료를 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

둘째, 실제 학습량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

좋은 교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그 교재를 실제로 충분히 공부하는 것은 다르다. 일주일에 한두 번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 필요한 독해량이 확보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학원에서 진행하는 학습과 가정에서 수행하는 과제를 함께 고려해 학생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영어를 읽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아니다. **실제로 읽고, 이해하고, 복습한 학습의 양**이다.

셋째,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는 체계

학생이 과제를 끝냈다고 해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읽은 글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암기한 어휘를 기억하는지, 배운 문법을 새로운 문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검은 반드시 어려운 시험의 형태일 필요는 없다. 영어 원서를 읽은 뒤 가벼운 퀴즈를 풀 수도 있고, 문법 전 범위 모의고사를 통해 누적된 실력을 확인할 수도 있다. 학생의 연령과 학습 목적에 맞는 평가와 피드백이 중요하다.

넷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과정

학습의 결과를 확인했다면 그다음에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단어시험에서 틀린 어휘를 다시 익히고, 문법 모의고사에서 틀린 문제를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다시 풀며, 독해에서 어려움을 겪은 문장 구조를 새로운 지문에서 반복해서 접하도록 해야 한다. 평가만 반복하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평가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적절한 자료, 충분한 학습량, 객관적인 점검, 부족한 부분의 보완. 이 네 가지가 서로 연결될 때 좋은 학습 환경이 만들어진다.**

05. 학원에 보내는 것과 학습을 관리하는 것은 다르다

학부모는 자녀의 영어교육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다. 학원을 선택하고 정해진 시간에 보내며, 숙제를 하고 시험을 준비하도록 돕는다. 그러나 학원에 꾸준히 다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영어 실력이 충분히 성장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학생이 어떤 교재를 공부하는지, 교재의 수준이 적절한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영어 지문을 읽는지, 배운 내용을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따라 학습 경험은 달라질 수 있다. 학부모가 이러한 모든 과정을 직접 관리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자녀가 어떤 학습을 하고 있고, 그 학습이 실제 실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있다. 예를 들어 학원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다.

우리 아이는 일주일 동안 어느 정도 분량의 영어를 읽고 있나요?

현재 사용하는 독해 교재의 수준은 우리 아이에게 적절한가요?

배운 문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과제나 시험에서 반복적으로 틀리는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나요?

지난 6개월 동안 실제 영어 실력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이러한 질문은 학원의 교육 방식에 간섭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부모가 자녀의 학습 상태를 이해하고, 필요한 부분을 함께 지원하기 위한 질문이다. 학원에서 사용하는 교재가 유명하거나 진도가 빠르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의 실력이 실제로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학습 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담당 교사는 학생의 현재 수준과 학습 내용, 부족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학습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면 객관적인 외부 진단평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떤 학원에 다니고 있는가보다, 그곳에서 배우는 동안 아이의 영어 실력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06. 관리와 간섭은 다르다

부모가 자녀의 영어학습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지나친 간섭은 오히려 학생이 공부를 부담스럽게 느끼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일 단어시험 점수와 숙제의 완성 여부만 확인하거나, 학습이 끝날 때마다 무엇을 얼마나 공부했는지 추궁한다면 아이는 영어학습을 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반대로 학원에 다닌다는 이유로 학습 과정을 전혀 확인하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학생에게 필요한 관심과 지원을 제공하되, 실제 학습을 수행하는 주체는 학생 자신이라는 사실을 존중하는 것이다. 부모는 공부를 대신할 수도 없고,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해 줄 수도 없다. 대신 아이가 공부를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를 함께 살펴볼 수 있다. 과제가 자주 밀린다면 단순히 게으르다고 판단하기보다 과제의 양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학생의 수준에 비해 어려운 것은 아닌지, 다른 과목의 학습 부담이 지나치지는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영어책 읽기를 싫어한다면 독서 습관이 부족한 것인지, 책의 수준이 맞지 않는 것인지, 흥미를 느낄 만한 소재가 아닌지 살펴볼 수 있다. 필요하다면 담당 교사와 상의해 자료나 학습량을 조절할 수도 있다. **좋은 학습 관리는 학생을 끊임없이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공부를 지속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찾아 해결하는 과정이다.**

07. 조급함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성장이다

학부모가 자녀의 영어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다른 학생들의 학습 수준과 진도를 비교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주변 학생이 벌써 고등학교 문법을 공부한다거나 수능모의고사 문제집을 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아이의 진도가 늦은 것은 아닌지 걱정할 수 있다. 그러나 영어학습에서 빠른 진도가 반드시 높은 실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교재를 공부하더라도 학생마다 실제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 어려운 독해 교재를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그 지문을 스스로 얼마나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문법책을 여러 권 끝냈다는 사실보다 다양한 문법 요소가 섞인 문제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다른 학생의 진도와 비교하기보다 현재 아이의 수준을 기준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이를 위해 Star Reading이나 NELT와 같은 외부 진단평가를 활용할 수도 있다.

한 번의 검사 결과에 지나치게 반응하기보다 일정한 기간을 두고 실력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평가 결과가 예상보다 낮다고 해서 즉시 학습 방법이나 교육기관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확인하고, 적절한 보완 계획을 마련한 뒤 실제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어문해력은 단기간에 완성되지 않는다. 충분한 어휘 노출과 다양한 독해 경험, 문법 구조의 반복적인 활용이 오랫동안 축적되어야 한다. **부모의 조급함이 아이의 학습 속도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수준에서 실제 실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08. 부모가 한 달에 한 번 확인하면 좋은 것

부모가 매일 자녀의 영어학습을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는 없다. 가정에서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마련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첫째, 실제 영어 독해량이 충분한가?

수업과 과제를 포함해 학교 시험범위 밖의 영어 지문을 얼마나 읽었는지 확인한다. 단순히 몇 권의 교재를 끝냈는지보다 실제로 읽은 글의 분량과 난도, 이해도를 함께 살펴야 한다.

둘째, 학습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과제가 자주 밀리거나 학습을 지속하기 어려워한다면 원인을 살펴본다. 학생의 의지만을 문제 삼기보다 자료의 수준과 학습량, 생활 습관 등을 함께 확인한다.

셋째,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단어시험이나 문법 평가에서 반복적으로 틀리는 부분을 어떻게 복습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새로운 학습을 계속 추가하는 것보다 이미 드러난 취약점을 보완하는 일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넷째, 장기적인 영어 실력이 성장하고 있는가?

학교 내신 성적과 별도로 영어 읽기 수준, 어휘력, 문법 활용 능력의 변화를 살펴본다. 외부 진단평가는 해당 평가에서 권장하는 주기에 맞춰 활용하고, 매월 점검에서는 일상적인 학습 수행과 교사의 관찰을 중심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다음 한 달 동안 무엇을 개선할 것인가?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읽기 시간 확보, 어휘 복습, 문법 오답 관리 등 현재 가장 필요한 목표를 한두 가지 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점검을 통해 부모는 자녀에게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학습의 방향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학원은 학습을 설계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학생은 직접 공부하고 실천하는 역할을, 부모는 그러한 학습이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세 역할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영어학습은 더욱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육적 지원 가운데 하나는, 아이가 꾸준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일이다.**

11장.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01. 영어 실력이 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녀가 영어학원에 다니면서 꾸준히 공부하고 있다면 학부모는 당연히 영어 실력이 향상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실제 영어 실력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확인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독해 교재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해서 그 수준의 영어를 스스로 읽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문법책을 여러 권 끝냈다고 해서 배운 문법을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학교 내신 성적 역시 영어 실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학생의 영어 능력 전체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특히 중학교 내신은 학교별로 시험범위와 난도가 다르며, 정해진 시험범위를 충분히 반복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자녀의 영어 실력을 확인하려면 학교 성적과 별도로 객관적인 평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얼마나 오랫동안 영어를 공부했는가보다, 그 시간 동안 영어 실력이 실제로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02. 학교 성적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영어 실력

중학교 내신에서 100점을 받은 두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두 학생은 모두 학교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그러나 시험범위 밖의 새로운 영어 지문을 읽게 하면 독해 능력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다. 한 학생은 처음 보는 글에서도 문장 구조를 파악하고 중심 내용을 이해하지만, 다른 학생은 이미 공부한 지문에서는 높은 정답률을 보이면서도 새로운 지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두 학생의 내신 점수는 같지만 고등학교 영어를 준비한 정도까지 같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확인하려면 학생이 처음 접하는 영어 자료를 활용한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다음과 같은 능력을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다.

어휘력

현재 어느 수준의 어휘를 이해하고 있으며, 단어의 대표적인 뜻뿐 아니라 문맥에 따른 의미까지 판단할 수 있는가?

문법 활용 능력

배운 문법 규칙을 알고 있는가? 또한 어떤 문법 요소를 묻는지 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

독해력

처음 보는 문장을 정확하게 읽고, 글의 중심 생각과 논리적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가?

듣기 능력

영어의 소리를 듣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며, 학생의 학습 단계에 필요한 듣기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한 영역의 성적이 높다고 해서 다른 영역의 실력까지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체 점수뿐 아니라 영역별 강점과 약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03. 객관적인 영어 진단평가를 활용하자

학부모가 직접 영어 지문을 골라 자녀의 수준을 평가하는 일은 쉽지 않다. 영어를 잘하는 부모라고 해도 적절한 난도의 지문을 선택하고, 어휘·문법·독해 능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미 마련되어 있는 영어 진단평가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대표적으로 Star Reading이나 NELT 같은 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Star Reading은 학생의 영어 읽기 수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검사다. NELT는 어휘·문법·독해·듣기 등 여러 영역의 영어 능력을 진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내에서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을 갖춘 학원의 레벨 테스트를 통해 현재의 영어 실력을 점검해 볼 수도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검사의 이름이나 점수 자체가 아니다. **검사 결과를 통해 우리 아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체 점수는 높지만 문법 영역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면 문법의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해 영역이 부족하다면 어휘력의 문제인지, 복잡한 문장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지, 글의 논리적 흐름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하나의 검사 결과만으로 모든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부족한 영역을 발견하고 다음 학습 방향을 정하는 출발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04. 레벨 테스트를 받을 때 확인해야 할 것

학원의 레벨 테스트는 학생에게 적절한 수업과 교재를 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학원마다 평가의 내용과 난도, 결과를 해석하는 기준이 다르다. 어떤 학원에서는 높은 레벨을 받았더라도 다른 학원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학원별 레벨 명칭이나 숫자를 직접 비교해서는 안 된다. 레벨 테스트를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첫째, 어떤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인가?

어휘와 문법, 독해, 듣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지, 특정 영역만을 중심으로 평가하는지 확인한다.

둘째, 학생의 현재 수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가?

단순히 몇 점을 받았고 어느 반에 배정된다는 설명을 넘어, 학생이 잘하는 영역과 부족한 영역을 알려주는지 살펴본다.

셋째, 평가 결과가 실제 학습 계획으로 연결되는가?

평가에서 드러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어떤 수준의 교재와 수업이 필요한지 설명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이후 성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가?

처음 입학할 때 한 번 평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학습한 뒤 실력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더욱 좋다. 학부모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아이가 높은 반에 배정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다. **현재 실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수준에서 실제로 성장할 수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점이다.**

05. 한 번의 점수보다 성장의 추이가 중요하다

객관적인 평가를 활용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한 번의 검사 결과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학생의 점수는 평가 당일의 컨디션이나 검사 내용, 측정 오차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평가 도구는 측정하는 능력과 점수 체계가 다르다. 따라서 Star Reading의 점수와 NELT의 점수를 단순히 비교하거나, 서로 다른 학원에서 받은 레벨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가능하면 같은 평가 체계를 활용해 일정한 간격으로 결과를 축적하고,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기록할 수 있다.

평가 항목	첫 번째 검사	다음 검사
검사일	3월	9월
평가 도구	동일 검사	동일 검사
전체 결과	결과 기록	변화 확인
어휘	강점·약점 기록	변화 확인
문법	강점·약점 기록	변화 확인
독해	강점·약점 기록	변화 확인
보완 과제	학습 목표 설정	수행 결과 점검

※ 실제 점수와 영역 구성은 사용하는 평가 도구에 따라 다르다. 정식 재검사 시점은 평가기관의 안내를 따른다.

평가 결과를 기록할 때는 당시 어떤 교재를 공부하고 있었는지, 어떤 영역에 집중하고 있었는지도 함께 남겨두면 좋다. 이러한 기록이 쌓이면 학생의 영어 실력이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다만 점수가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평가 결과와 함께 새로운 영어 지문을 읽을 때 필요한 설명이 줄어들었는지, 더 높은 수준의 자료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지 등 실제 학습 과정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06. 평가 결과를 학습 개선으로 연결하자

객관적인 평가는 학생의 실력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영어 실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평가에서 확인된 부족한 부분을 실제 학습에 반영하는 일이다. 어휘력이 부족하다면 학생 수준에 맞는 어휘학습과 복습을 강화하고, 다양한 영어 지문에서 배운 단어를 반복해서 접하도록 할 수 있다. 문법이 부족하다면 어떤 문법 요소를 혼동하는지 확인하고, 단원별 학습과 전 범위 문법 모의고사를 병행할 수 있다. 독해력이 부족하다면 무조건 어려운 지문을 많이 읽히기보다 먼저 원인을 살펴야 한다. 기본적인 어휘가 부족한 것인지,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인지, 문장의 뜻은 이해하지만 글 전체의 논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학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부모가 직접 영어를 지도할 필요는 없다.

평가 결과를 담당 교사와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학습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완하기로 했던 부분에서 실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좋은 평가는 점수를 알려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학습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07. 부모가 확인해야 할 것은 결국 성장이다

자녀의 영어교육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면서도 정작 실력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학원에 꾸준히 다니고 있고, 숙제를 하고 있으며, 새로운 교재로 진도가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물론 영어문해력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능력이 아니므로 한두 달 사이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오랫동안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 부모는 아이의 현재 수준을 확인하고, 적절한 학습 환경을 마련하며, 일정한 간격으로 실제 실력이 성장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이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점수를 비교하는 일이 아니다. 현재의 영어 실력에서 어떤 부분이 좋아졌고, 무엇이 여전히 부족한지 이해하는 것이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의 방향을 조정하고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어야 한다. **영어교육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교재를 끝냈는가가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학생의 영어 실력이 실제로 얼마나 성장했는가에 달려 있다.**

12장. 학부모를 위한 영어교육 로드맵

01. 학년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영어 실력이다

같은 초등학교 6학년이라도 영어 실력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릴 때부터 영어 원서를 꾸준히 읽어 장편 이야기책을 어려움 없이 이해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 기본적인 영어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도 있다. 중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같은 학년이라고 해서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수준의 영어 독해 교재와 문법학습이 적절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영어학습의 방향을 결정할 때 학년이나 지금까지 공부한 교재의 권수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우선 학생의 현재 영어 수준을 확인해야 한다. Star Reading이나 NELT와 같은 진단평가를 활용하거나, 지역 내에서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을 갖춘 학원의 레벨 테스트를 통해 현재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학생에게 필요한 학습과 다음 단계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 좋다.

특히 영어학습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반복하는 시간과 새로운 능력을 발전시키는 시간의 균형**이 중요하다. 너무 쉬운 학습만 반복하면 성장 속도가 느려질 수 있고, 반대로 현재 실력보다 지나치게 어려운 내용을 공부하면 학생이 스스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충분히 기르기 어렵다. 따라서 아래의 학년별 로드맵은 모든 학생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진도가 아니라, 현재 실력을 바탕으로 학습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참고 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

02. 초등 영어 로드맵

초등 영어학습은 영어에 대한 흥미와 친숙함에서 출발해, 점차 영어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확장하는 과정이다.

초등 저학년 — 영어와 친해지는 시기

영어의 소리를 충분히 듣고, 수준에 맞는 영어책을 읽으며 영어에 대한 친숙함을 기른다. Oxford Reading Tree와 같은 단계별 리더스북을 활용해 짧은 영어문장에 익숙해지고,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며 읽는 경험을 쌓는다. 영어책을 읽은 뒤에는 아주 쉬운 독서 퀴즈를 활용해 읽기의 즐거움을 더할 수도 있다. 부모가 가능하다면 자녀에게 영어책을 읽어주고, 오디오북을 함께 듣는 것도 좋다. 이 시기에는 어려운 문법 설명이나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독해보다 영어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꾸준히 읽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등 중학년 — 독해량과 어휘를 확장하는 시기

학생의 현재 수준에 맞춰 영어 원서의 길이와 난도를 점진적으로 높여 나간다. 이야기책을 충분히 읽으면서 과학·역사·사회·문화 등을 다룬 쉬운 논픽션을 함께 접하기 시작한다. 새로운 어휘를 익히고, 읽은 글에서 그 어휘를 다시 만나는 경험을 통해 문맥 속 의미를 이해하도록 한다. 기초적인 영문법 역시 실제 문장과 연결해 학습할 수 있다. 이 시기에도 소리영어 학습을 병행하며 듣고 따라 읽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좋다.

초등 고학년 — 중등·고등 영어의 기초를 완성하는 시기

초등 고학년부터는 영어 원서 읽기를 유지하면서 토플형 논픽션 독해를 본격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 과학·사회·역사·문화·심리 등 다양한 분야의 설명문과 논증문을 접하며 글의 중심 내용과 논리적 흐름을 이해하는 능력을 발전시킨다. 문법은 중학 영문법의 주요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계사·분사·수동태 등 배운 구조를 실제 영어 지문에서 반복해서 접하도록 한다. 학생의 실력이 충분하다면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수준의 영어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것을 도전적인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고1 모의고사 문제를 제한시간 안에 풀어 높은 점수를 받는 것과 해당 수준의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구별해야 한다. 목표는 학생의 실제 수준에 맞춰 조정하되, 초등학교 시절에 충분한 영어 독해량과 문장 이해 능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03. 중등 영어 로드맵

중학교 3년은 학교 내신을 성실하게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영어에 필요한 실력을 축적하는 시기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시험범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학교 시절부터 다양한 영어 지문을 충분히 읽는 경험이 필요하다.

중학교 1학년 — 독해량을 유지하고 문법의 기초를 체계화하는 시기

초등학교에서 쌓은 영어 읽기 경험이 중학교에서도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토플형 논픽션과 수준에 맞는 수능모의고사 지문을 활용해 읽기의 범위를 넓히고, 문법의 주요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문법주제별 학습과 함께 이미 배운 문법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 범위 문법 모의고사를 시작할 수 있다. 학교 내신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기간을 제외한 평상시에는 충분한 독해량을 확보해야 한다.

중학교 2학년 — 고등 영어에 필요한 능력을 본격적으로 확장하는 시기

중학교 2학년부터는 학생의 수준에 따라 고등학교 수준의 영어 독해를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는 것이 좋다. 복잡한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글의 중심 내용과 논리적 흐름, 패러프레이즈를 이해하는 연습을 강화한다. 문법은 단원별 개념 학습과 전 범위 문법 모의고사를 병행하며, 객관식 문제의 정답을 고르는 능력뿐 아니라 정확한 영어문장을 직접 구성하는 서술형 영작 능력도 발전시킨다. 이 시기에는 중학교 내신 성적과 별도로 고등학교 영어를 준비할 수 있는 실력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학교 3학년 — 고등학교 진학 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시기

중학교 3학년은 고등학교 진학 전에 영어 실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특히 긴 영어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과 복잡한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문법에서는 누적된 개념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반복적으로 틀리는 문법 요소를 보완한다. 어휘는 단어장의 대표적인 뜻을 암기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문맥 속에서 다양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고등학교 교과서를 무조건 미리 공부하기보다는 고등학교의 방대한 시험범위를 소화할 수 있도록 영어문해력을 충분히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다.

04. 초등·중등 졸업 전에 확인해야 할 영어 실력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영어를 잘 준비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앞서 소개한 NELT나 Star Reading 같은 진단평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실제 수능모의고사와 지역 학교의 기출문제를 통해 고등 영어를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도 있다. 필자는 초등학교 6학년 말과 중학교 3학년 졸업 전을 영어 실력을 점검할 중요한 시점으로 생각한다.

초등학교 6학년 말 — 고1 수준의 독해력을 갖추었는가?

초등학교 6학년 후반부에 고등학교 1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의 독해 지문을 제시했을 때, **문항의 80% 이상을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독해력 측면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초등학생에게 반드시 요구해야 하는 기준은 아니다. 영어학습을 시작한 시기와 현재 수준에 따라 목표에 도달하는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학생이 처음 보는 지문을 스스로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문법과 서술형 능력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범어·만촌 지역에서는 정화중이나 동도중 2학년의 영어 기출문제 가운데 문법 관련 문항을 활용해 볼 수 있다. 실제 학교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를 통해 배운 문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중학교 3학년 졸업 전 — 고등 내신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가?

중학교 3학년을 마칠 무렵에는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의 독해 지문을 활용해 실력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고2 모의고사의 독해 문항을 처음 접한 상태에서 90% 이상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고등 영어를 준비하는 독해력 측면에서 안정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 실제 고등학교 내신 기출문제를 활용한 문법·서술형 점검을 병행하면 더욱 좋다. 경북고·대륜고·정화여고·대구여고 등 지역 주요 고등학교
1학년의 영어 기출문제에서 객관식 어법 문항과 서술형 문제를 선별해 풀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학교에서 배운 문법을 실제 고등학교 시험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필요한 영어문장을 정확하게 구성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시험 점수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해결 능력이다

이러한 점검에서는 이미 공부한 지문이나 반복해서 풀었던 문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처음 보는 지문과 문제를 학생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교사의 해석과 설명에 의존해 정답을 찾는다면, 정답률이 높더라도 독립적인 독해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여기에서 제시한 80%, 90%는 공식적인 평가기관의 기준이 아니라 필자가 실제 영어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하는 도전적인 학습 목표다.

또한 모의고사 독해 문항의 정답률만으로 고등학교 내신 1등급이나 수능 영어 1등급을 보장할 수는 없다. 실제 시험에서는 시간 관리와 어법, 어휘, 듣기 등 다른 요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만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마치는 시점에 이처럼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영어 실력을 점검한다면, 단순히 교재의 진도나 학교 시험 성적에 의존하는 것보다 앞으로 필요한 학습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 학교의 기출문제를 구하기 어렵거나 적절한 평가 자료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학부모는 저자에게 개인적으로 문의해도 좋다. 학원 수강 여부와 관계없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와 점검 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05. 중학교 내신과 장기 실력 학습의 운영 원칙

중학교 영어학습에서는 평상시와 내신 기간의 학습 목표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상시에는 학교 시험범위 밖의 다양한 영어 지문을 충분히 읽고, 어휘와 문법 활용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반면 학교 시험을 앞둔 기간에는 교과서와 외부지문 분석, 학교별 기출 유형, 문법과 서술형 대비에 집중해야 한다. 이 시기에는 평상시 진행하던 장기 실력 학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내신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중요한 것은 내신 기간에도 모든 학습을 조금씩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시험기간에는 학교 내신에 집중하고, 시험이 끝나면 지체 없이 장기적인 영어 실력 학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중학교 3년 동안 유지한다면 학교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고등학교 영어에 필요한 실력을 꾸준히 축적할 수 있다.

06. 학부모가 확인해야 할 일곱 가지

학부모가 자녀의 영어교육을 직접 지도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현재의 학습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는 있어야 한다. 다음 일곱 가지 질문을 활용해 자녀의 영어학습을 점검해 보자.

① 현재 영어 실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있는가?

Star Reading, NELT 또는 체계적인 학원의 레벨 테스트 등을 통해 학생의 현재 수준과 성장 추이를 살펴본다.

② 학교 시험범위 밖에서도 충분한 영어 독해량을 확보하고 있는가?

픽션과 논픽션을 균형 있게 읽고, 다양한 분야의 영어 지문을 접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③ 문법을 배운 뒤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가?

문법주제별 학습뿐 아니라 전 범위 문법 모의고사를 통해 누적된 문법 실력을 확인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④ 틀린 문제를 다시 풀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가?

전 범위 문법 모의고사에서 틀린 문제를 수집하고, 2~3주 후 다시 풀어보는 등의 복습 체계가 있는지 확인한다.

⑤ 단어 암기와 문맥 속 반복 노출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가?

단어시험 점수뿐 아니라 실제 영어 지문에서 다양한 어휘의 의미와 쓰임을 익히고 있는지 살펴본다.

⑥ 영어의 소리를 듣고 따라 말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시기까지 학생의 수준에 맞는 음원을 활용해 에코잉과 섀도잉 등의 활동을 꾸준히 수행하는지 확인한다.

⑦ 아이가 꾸준히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가?

가정에서 책을 가까이하고, 정해진 독서 시간을 확보하며, 부모가 함께 독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지속 가능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모든 항목을 한꺼번에 완벽하게 실천할 필요는 없다. 현재 아이에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학습은 유지하고,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보완해 나가면 된다.

07. 교육의 성과는 결국 학생의 성장이다

영어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학원을 다니는지, 얼마나 많은 교재를 끝냈는지, 얼마나 빠른 진도로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지가 아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 영어 실력이 얼마나 성장했는가 하는 점이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충분한 영어 원서 읽기와 소리영어를 통해 영어에 익숙해지고, 점차 다양한 논픽션과 복잡한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중학교에서는 학교 내신을 성실하게 준비하면서도 시험기간을 제외한 시간을 활용해 고등학교 영어에 필요한 독해력과 문법 활용 능력을 충분히 축적해야 한다. 부모는 이러한 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학습 기록을 통해 실제 성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학교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학생을 만드는 것만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고등학교에서도 높은 수준의 영어를 충분히 이해하고, 대학 진학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영어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영어교육은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올바른 학습 방향과 지속 가능한 환경이 마련된다면 그 시간은 학생의 실력으로 축적될 수 있다.

실천 가이드. 우리 아이 영어학습 점검하기

지금까지 영어문해력과 독해량, 문법과 어휘, 소리영어, 부모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용을 실제 자녀의 영어학습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학부모가 모든 학습을 직접 지도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현재 자녀의 영어 실력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며, 필요한 학습 환경을 마련하는 일은 충분히 할 수 있다. 다음의 점검표를 활용해 우리 아이의 영어학습을 살펴보자.

01. 먼저 현재의 영어 실력을 확인하자

영어학습의 방향을 결정하기 전에 현재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Star Reading이나 NELT와 같은 진단평가를 활용하거나, 지역 내에서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을 갖춘 학원의 레벨 테스트를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시기에는 수능모의고사 독해 지문과 지역 학교의 기출문제를 활용해 다음 학습 단계에 필요한 실력을 점검해 볼 수도 있다.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 기록

점검 항목	기록
학교·학년	
검사일	
평가 도구	
독해 수준 및 결과	
어휘·문법의 강점	
부족한 영역	
다음 점검 예정일	

검사 결과는 한 번의 점수로 판단하지 말고 같은 평가 체계에서 일정 기간의 변화를 비교하는 데 활용하자.

02. 한 달 동안 실제로 무엇을 공부했는가?

학원에 다니고 교재의 진도가 나아간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특히 독해학습에서는 몇 권의 교재를 끝냈는지보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영어를 읽고 이해했는지가 중요하다.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한 달의 학습을 점검해 보자.

학습 영역	확인할 내용
영어 원서	수준에 맞는 책을 꾸준히 읽었는가?
논픽션 독해	과학·역사·사회 등 다양한 글을 읽었는가?
수능형 독해	학생 수준에 맞는 새로운 지문을 읽었는가?
어휘	꾸준한 암기와 복습이 이루어졌는가?
문법	단원별 학습과 전 범위 평가를 병행했는가?
오답 관리	틀린 문제를 다시 풀고 취약점을 보완했는가?
소리영어	수준에 맞는 음원을 듣고 따라 읽었는가?

모든 항목을 동일한 비중으로 학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의 현재 수준과 학습 단계에 따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영역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중학교 내신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에는 학교 시험범위에 집중하고, 시험이 끝난 뒤 평상시 학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03. 부모가 마련해 줄 수 있는 독서 환경

부모가 직접 영어를 가르치지 못하더라도 아이가 영어책을 가까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 다음 항목 가운데 현재 실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자.

□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이와 함께 도서관에 간다.

□ 아이가 책을 읽는 동안 부모도 함께 책을 읽는다.

□ 유아·초등 저학년 자녀에게 가능하면 꾸준히 책을 읽어준다.

□ 저녁 시간에 가족이 함께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독서하는 시간을 갖는다.

□ 아이의 수준에 맞는 영어책을 집 안에서 쉽게 꺼내 읽을 수 있도록 배치한다.

□ TV와 스마트폰 사용이 독서 시간을 지나치게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 책을 읽은 뒤에는 부담스러운 평가보다 자연스러운 대화나 쉬운 퀴즈를 활용한다.

이 항목을 모두 실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정의 여건에 맞게 한두 가지부터 시작하고,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부록. 한눈에 보는 초·중등 영어학습 원칙

01. 초등과 중등,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학습 영역	초등 과정	중등 과정
영어문해력	픽션과 논픽션을 함께 읽으며 충분한 독해량 확보	토플형 논픽션과 수능모의고사 지문으로 독해력 확장
문장 구조	배운 문법을 실제 문장에서 반복적으로 만나며 구조 내재화	복잡한 문장 구조의 정확한 분석과 이해
문법	중학 영문법의 주요 개념 체계화	문법주제별 학습과 전 범위 문법 모의고사 병행
서술형	기초 문장 구성과 영작 연습	고등 내신형 서술형 영작 능력 강화
어휘	단어 암기와 문맥 속 반복 노출	다의어·추상어·패러프레이즈 이해
소리영어	원서 음원 등을 활용한 듣기·에코잉·섀도잉	중학교 1~2학년까지 수준에 맞춰 꾸준히 유지
학습 평가	현재 수준 확인과 누적 평가 습관 형성	전 범위 문법 평가 및 오답 재평가
내신 대비	장기적인 영어 실력의 기초 형성	시험기간에는 내신 집중, 평상시에는 장기 실력 축적

02. 범어·만촌 학군지, 고등 영어 내신 1등급의 바로미터

범어·만촌 지역의 주요 고등학교에서 영어 내신 1등급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추어야 할까? 필자는 초등학교 6학년 말과 중학교 3학년 졸업 전을 영어 실력의 중요한 점검 시점으로 생각한다. 다음은 실제 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하는 고등 영어 준비 상태의 점검 기준이다.

구분	초등학교 6학년 후반	중학교 3학년 졸업 전
독해력 점검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독해 문항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독해 문항
제안 목표	처음 보는 독해 문항 80% 이상 정답	처음 보는 독해 문항 90% 이상 정답
문법 평가	정화중·동도중 2학년 기출문제의 문법 문항	지역 주요 고등학교 1학년 기출 어법·서술형
평가 목적	중학교 진학 전 독해·문법 준비 상태 확인	고등학교 진학 전 독해·문법·서술형 준비 상태 확인

위 기준은 저자의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하는 목표이며, 고등학교 내신 1등급을 보장하는 공식적인 기준은 아니다. 이미 공부했던 지문이 아닌 처음 보는 자료로 점검해야 하며, 정답률뿐 아니라 스스로 해결하는 데 걸린 시간과 문장 이해의 정확성도 함께 살펴야 한다.

03. 학부모가 기억해야 할 다섯 가지 원칙

첫째, 학교 성적과 실제 영어 실력을 함께 살펴야 한다.

중학교 내신에서 100점을 받는 것은 의미 있는 성취이지만, 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영어 실력을 충분히 갖추었다는 뜻은 아닐 수 있다.

둘째, 영어문해력을 기르기 위해 충분한 독해량을 확보해야 한다.

어휘와 문법, 문장 구조, 패러프레이즈 능력은 다양한 영어 지문을 반복해서 읽는 과정에서 서로 연결되고 발전한다.

셋째, 배운 문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문법 교재의 진도에만 집중하지 말고 전 범위 문법 모의고사와 오답 재평가를 활용해 실제 문법 적용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

넷째, 부모는 공부를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마련하는 사람이다.

함께 도서관에 가고, 책을 읽고, 가정에서 독서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일은 부모가 영어를 잘하지 못하더라도 실천할 수 있다.

다섯째, 학습의 성과는 실제 영어 실력의 성장으로 확인해야 한다.

교재의 권수나 선행학습 진도보다 학생이 처음 보는 영어 지문을 얼마나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는지가 중요하다.

핵심 원칙

중학교 내신은 성실하게 준비하되, 시험기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고등학교 영어에 필요한 실력을 충분히 쌓아야 한다. 초등학교부터 영어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꾸준히 기르고, 부모는 그러한 학습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맺음말

고등학교 영어는 고등학교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오랫동안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거듭 확인하게 된다. 중학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던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예상보다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중학교 영어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은 의미 있는 성취다. 특히 범어·만촌 지역의 일부 중학교 시험은 범위도 넓고 문제의 난도도 높아 상당한 학습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시험범위에는 큰 차이가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훨씬 많은 영어 지문을 제한된 시간 안에 이해하고 분석해야 한다. 시험범위의 문장을 충분히 반복하고 익혀 높은 점수를 받는 능력과, 처음 보는 영어 지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시절부터 충분한 영어문해력을 길러야 한다.

다양한 영어 지문을 읽고, 문맥 속에서 어휘를 반복해서 만나며, 배운 문법을 실제 문장에서 활용하는 경험이 쌓여야 한다. 영어문해력은 단기간에 완성되지 않는다. 몇 주 동안의 집중적인 학습이나 문제 풀이 요령만으로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아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된 꾸준한 읽기 경험과 체계적인 학습이 오랫동안 축적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이에게 영어책을 많이 읽으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이러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학생의 수준에 맞는 책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충분히 읽을 시간이 마련되어야 하며,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중요하다. 부모가 직접 영어를 가르치지 않더라도 아이와 함께 도서관에 가고, 저녁 시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함께 책을 읽으며, 가정에서 책을 가까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영어교육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꾸준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마련하는 일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 책을 읽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영어학습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기를 바란다. 지금 어떤 학원을 다니고 있는지, 어떤 교재를 공부하고 있는지, 얼마나 빠르게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지만 살펴보지 않았으면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얼마나 많은 영어를 읽고 있는지, 처음 보는 영어 지문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실제 영어 실력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바란다. **영어교육의 목표는 중학교 영어시험에서 100점을 받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을 넘어 대학 진학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영어 능력을 기르는 데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성장은 학생의 노력뿐 아니라 꾸준한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좋은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 책이 자녀의 영어교육을 고민하는 학부모들에게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김용진

범어·만촌에서 영어로 앞서가기

김용진 지음

영어교육 설계자

(주)에쎈에듀 대표 · 에쎈영어 원장

www.essenenglish.co.kr

blog.naver.com/essenenglish